

#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는 이유

정동수 지음

THE  
HOLY  
BIBLE,  
Conteyning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Newly Translated out of the Originall*

- 킹제임스 성경과 틴데일
-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
- 영어 킹제임스 성경 동사 어미 변화
-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정의
-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
-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는 이유

# 목 차



○ 서 문 .....	3
1. 킹제임스 성경과 틴데일 .....	5
2.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	21
3.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 .....	54
4. 영어 킹제임스 성경 동사 어미 변화 .....	64
5.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정의 .....	65
6.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	67
7.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 .....	76
8.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 .....	80
9.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는 이유 .....	84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For I testify unto every man that heareth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If any man shall add unto these things, God shall add unto him the plagues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And if any man shall take away from the words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God shall take away his part out of the book of life, and out of the holy city, and from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in this book(Rev. 22:18-19).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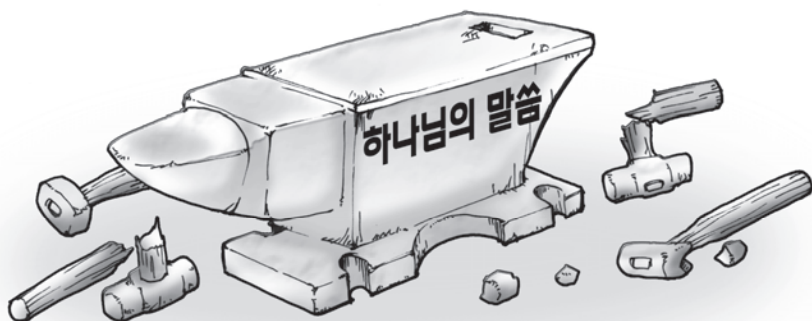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시오.”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망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합니다.





## 서 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류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함과 장엄한 언어, 무궁무진한 영적 풍요로움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데 없는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드러내는 수많은 성경 역본들이 존재하였지만 가장 많이 인쇄되고 팔리고 기독교 신조와 신학의 기초가 되며 다른 나라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기준이 되는 대본으로 쓰인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왕국의 국왕 제임스 1세는 1604년에 영국의 모든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할 것을 지시하였고 1611년 5월 2일에 출간된 성경은 왕의 이름을 따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천주교의 부패된 소수 사본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팔레스타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역에 보편적으로 퍼져 대다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해 온 다수 사본들에 근거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기반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 50여 명이 동원되어 번역한 성경으로 1611년 출간된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총 여섯 조로 편성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 세 도시에서 회합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사용한 팀 단위의 번역 기법은 현대 역본 역자들이 사용한 방법과 전혀 달랐습니다. 현대 역본 번역 위원들 중 실제로 번역을 하는 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각자가 최고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었고 각 사람이 자기의 번역을 마친 후에도 같이 모여 최종 번역을 결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 여섯 조에 속해 있는 각 사람(조당 평균 7명)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그리스어에 능통해야 했고 자기 조에 맡겨진 책들(1조의 경우 12권)을 직접 번역해야 했습니다. 원래의 본문은 각 조에서 먼저 7명에 의해 7번의 번역 작업을 거쳤고, 조의 번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1번 더 검토했으며, 각 조의 번역본은 다른 조들로 넘겨져서 5번 더 검토 작업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번역 작업은 개인이 7번, 조가 1번, 다른 조들이 1번씩 총 5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조당 2명씩, 여섯 조에서 차출된 12명이 최종 교정을 보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책은 최소한 14번 이상의 철저한 번역과 검토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것이며 전무후무한 팀 단위 작업 방법입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 방법의 우수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및 영향에 대해서는 개역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대조해서 1989년에 출간된 '툼슨대역 한영성경'의 편집자들이 다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투스대역 한영성경, 기독교회사, 부록 1, p. 4, 1989).

내적 우수성으로 인해 킹제임스 성경은 대중들의 일상 영어 속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이 침투해 들어갔기에 이것은 영어권 대중의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흡사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일종의 DNA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권 세계의 공통 규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은 역자들의 서문에서 번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세석 학자들까지 인정하는 명문을 남겼습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또한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 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 길을 그릇이 없이 우물가에서 있는 아이들과 같은 처치가 될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는 이유」, 이 책은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보여 주기 위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흠정역 성경의 부록에 수록된 글들과 킵바이블 사이트에 있는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왜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책으로 출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살롬

사랑침례교회 목사 정동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주 번역자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사26:3).

Thou wilt keep him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because he trusteth in thee(Isa, 26:3)



## 진리와 순교자

# 킹제임스 성경과 틴데일

제임스 왕(King James)이 제정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으며 특히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이 매우 어려웠거나 지연되었을 것이다. 이에 본 부록에서는 「폭스의 순교사화」(*Foxe's Book of Martyrs*)의 틴데일 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영어 성경의 역사와 틴데일의 일생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경을 보통 사람들의 손에 쥐여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는지 기억하고자 한다.

### 영국과 영어의 역사

영어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영국 민족과 영어의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후 5세기에 로마가 영국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브리튼족은 색슨족의 도움을 받아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침략을 막아 냈다. 색슨족은 북부 지방에서 승리를 거둔 뒤 돌아갔지만 그 뒤에 영국 남부를 차지하려 했다. 이런 싸움은 거의 15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동안에 앵글로족, 색슨족, 여러 이교도 등이 고대 영국을 일곱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영국 전체에 복음의 등불이 꺼진 상태였고 6세기 후반에 켄트의 왕이었던 에텔베르트(King Ethelbert, 560-616)가 회심한 뒤에야 비로소 다시 복음의 불이 불기 시작했다. 그 뒤 여러 왕국들은 주변의 좀 더 강한 왕국으로 합병되었고 마침내 주후 827년에 에그베르트(King Egbert, 771-839)는 이 모든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여 통치하였다.

색슨족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덴마크족이 계속해서 영국을 침략했고 여러 지역을 다스렸다. 그러다가 주후 878년에 앨프레드 대왕(Alfred the Great, 849-899)은 에딩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게 되었다. 그 뒤 150년 동안 영국인들과 덴마크족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영국 교회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란프랑코(Lanfranc of Canterbury, 1010-1089)에 의해 재조직되었다.

6-7세기부터 영국에서는 앵글로-색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에게 전해 주려는 시도가 있었고 8세기 초반에는 시편과 복음서를 번역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번역본은 현재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후 735년에 비디(Bede, 672-735)는 복음서를 번역했으며 앨프레드 대왕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하여 스스로 시편을 번역하기도 했다. 10세기 후반에는 앨프리크 대주교(Aelfric of Abingdon)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고 이로써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뒤 약 400년 동안은 영어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주후 1066년에서 1150

년까지는 색슨족의 언어와 노르만 프랑스어가 같이 쓰였다. 그러다가 1150년 이후에 이 두 개의 언어는 병합되기 시작했고 결국 고대 색슨어가 아니라 절반만 색슨어라는 의미의 '반-색슨'(semi-Saxon) 언어로 귀착되었고 그 뒤 1382년에 어느 정도 영어가 정형화된 상태에서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 순교자 위클리프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본문으로 영어 번역 성경 출간을 시도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은 잘못된 원본으로 인해 완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번역한 성경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려 정죄를 받고 출회당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1384년에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번역한 성경은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야만 했다. 보통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 데 열 달 정도가 걸렸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성경 한 권의 가격이 당시 도서관 사서의 일 년치 봉급 정도나 되었다. 그런데도 많은 양의 성경이 필사되자 마침내 영국 국회는 법령을 제정하여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영국의 아론델 대주교는 교황에게 '저 사악한 위클리프'를 처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뒤 1408년에 그의 지휘하에 옥스퍼드 회의가 열려 "어떤 형식으로든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아무도 그런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결정했고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뒤 약 1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위클리프의 성경을 목에 매단 채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와 롤러드파(Lollards)라 불리던 그의 동역자들의 수고로 많은 성경이 필사되어 아직까지 170권이 남아 있음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 영어 성경이 평민들의 손에 들어가자 큰 위협을 느낀 교황 요한 23세는 콘스탄스 공회를 열어 위클리프의 성경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미 죽어 무덤에 안치된 위클리프의 유골을 캐내어 불사를 것을 결의했다. 그 뒤 13년이 지나서 이들은 실제로 위클리프의 무덤을 열고 그의 뼈를 캐내어 불사르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박해를 겪으면서도 성경을 보통 사람들의 손에 쥐여 주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손으로 일일이 필사해야만 하는 제약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성경을 널리 보급할 수는 없었다.

## 구텐베르크와 인쇄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약 100년 전에 독일의 멘즈라는 오래된 마을에 요한 구스플레쉬(John Gooseflesh, 1397-1468)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천주교 사제들이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양피지를 만들어 어려운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다.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칼로 조각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불 옆에서 자기 어머니가 꿰고 있는 자주색 염색 냄비를 지켜보며 나무에다 자기 이름을 조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글씨를 새긴 나뭇조각들 가운데 하나가 염색 냄비 속으로 들어갔다. 얼른 그것을 꺼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그 옆에 놓여 있던 양피지에 떨어졌다. 그가 나뭇조각을 집어 올리자 그 양피지에 'h'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멘즈의 이 소년은 자기가 살던 옛집에서 그날 일어난 일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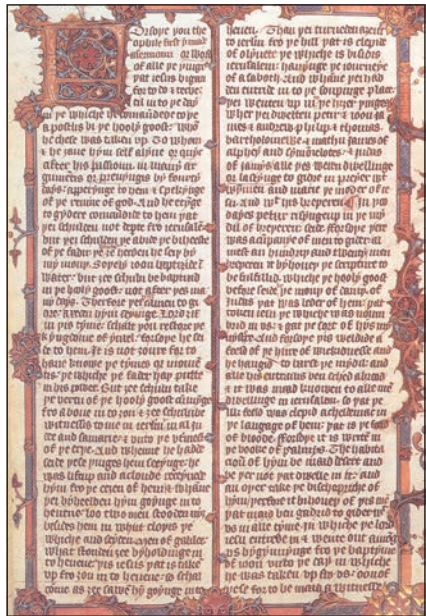
앨프레드 대왕



윌리엄



구텐베르크



윌리엄 성경



구텐베르크 성경 인쇄 장면



그때부터 그는 손으로 책을 필사하던 그 당시의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나뭇조각을 깎아 그 위에 글씨를 새기고 염색용 잉크를 묻혀 여러 가지 형태로 배열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서양에서 처음으로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독일의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는 누구나 다 아는 ‘최초의 인쇄기 발명가’로 역사 속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이 일에도 성경을 널리 보급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참으로 묘하게도 주후 1450년에서 1455년 사이에 서양에서 처음으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은 다름 아닌 라틴어 성경책이었다.

## 그리스 문화의 복원

서양에서 인쇄술이 발명되던 당시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터키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대부분의 훌륭한 학교들이 몰려 있던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어 학자들은 유럽의 각처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읽어 오던 ‘구(舊) 라틴 벌게이트’라는 번역 성경 대신 원어인 그리스어로 쓰인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로 인해 점차 사람들은 성경을 모든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다면 참으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내 원어에 대한 연구와 인쇄기의 발명 그리고 영어의 정형화 등으로 인해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순교자 틴데일

이 같은 변혁의 시기에 로마 카톨릭교회와 그들이 변개한 사본을 단호히 물리치고 개혁자들과 함께 순교하면서까지 영국의 평민들에게 영어 성경을 전해 주고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평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는 일이 훨씬 더 늦추어졌을 것이며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 KJV)과 같은 걸출한 역본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결국엔 자기 목숨까지 바친 틴데일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던 틴데일은 주후 1494년, 영국 웨일스 지방의 글로스터셔주의 노스니블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는 어학과 다른 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특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성경 연구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 마그달렌 홀에서 지내며 마그달렌 대학의 몇몇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몰래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들려주었으며 성경의 지식과 진리에 관해 교훈을 주었다. 그의 예의범절과 행동 등이 성경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덕스러운 성품의 소유자이며 흠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학교의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152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겨 가서 강사로서 몇 년간 머물게 되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늘린 그는 그 대학을 떠나 자기 고향인 글로스터셔주로 가서 마스터 웰치(Master Welch)라는 기사(騎士)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웰치의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주인인 웰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웰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하곤 했으므로 대수도원장, 집사, 집사장,

그리고 여러 분야의 의사 및 교회의 녹을 먹는 성직자 등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들은 틴데일과 함께 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특히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같이 학식이 깊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와 질문 등에 대해서도 서로 견해를 나누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해 온 틴데일은 이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기 견해를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곤 했다. 그들의 의견이 자기 의견과 다를 때면 그는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그들 앞에서 명백한 성경 구절을 보여 주곤 했으며 이로써 그들의 오류를 논박하고 자기 말을 확증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얼마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쟁을 하다가 마침내 지쳐서 마음속으로 틴데일에 대한 불평을 품기 시작했다. 일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자 그 지역의 사제들은 선술집이나 다른 곳에서 함께 모여 틴데일에 대해 비난과 폭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의 말이 이단 교리임을 확증하려 했으며 또 비밀리에 그를 주교의 종교법 고문 및 주교의 관리들 중 몇몇 사람들에게 고소하였다.

이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주교의 종교법 고문이 새로 임명을 받고는 여러 사제들에게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틴데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틴데일이 그들의 위협에 대해 미심쩍어했는지 혹은 그들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음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단지 그가 밝히 드러낸 바와 같이 그는 그들의 은밀한 고소에 대해 의심을 품었고 그래서 거기로 가는 길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자기에게 힘을 주실 것을 간구했다.

틴데일이 종교법 고문 앞에 설 날이 오자 그 고문은 그를 심하게 위협하였고 마치 그를 개처럼 취급하며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아무도 고소한 적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 지역의 사제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간신히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 틴데일은 그 길로 집을 떠나서 다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다.

거기에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당시 주교의 고문으로 지내던 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틴데일과 잘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틴데일은 그에게 가서 자기 마음을 열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황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는가? 그러나 말조심하게. 당신이 그런 의견을 가진 것이 알려지면 목숨이 달아날 걸세.”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틴데일은 우연히 어떤 신학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매우 학식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논쟁을 하다가 마침내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대해 그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그 위대한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였다.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

이 말을 들은 틴데일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한 채 이 같은 신성모독 발언을 참지 못하고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 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오.”

틴데일에 대한 사제들의 불평은 점점 더해 갔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틴데일을 향해 원성을 토로하고 욕했으며 그를 가리켜 이단이라 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로부터 많은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한 그는 결국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장소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 웰치에게 가서 그의 곁을 떠나도 좋다는 호의를 입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인이시여,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없으며 비록 주인께서 그들의 손에서 저를 보호하시려 해도 저를 보호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불명예를 당하시리라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주인의 호의를 입게 된 틴데일은 곧바로 런던으로 오게 되었으며, 거기에서도 이전 지방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 동안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는 그 당시 런던의 주교였던 턴스탈(Cuthbert Tunstall, 1474-1559)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한 턴스탈의 학식을 매우 높이 평가한 에라스무스의 추천의 말을 숙고하면서 만일 자기가 그의 일을 도울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틴데일은 왕의 감사관인 길포드 경에게 자기가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소크라테스의 연설문을 가지고 가면서 그가 자기를 위해 런던의 주교인 턴스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고대했다. 그런데 그는 틴데일을 위해 그 주교에게 편지를 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주교를 방문할 것을 권유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헬비스웨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주교의 종에게 편지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뜻대로 세상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틴데일에게나 자신의 교회에게나 최상의 것이 되지 않음을 보시고 그가 그 주교의 눈에 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그 주교는 현재 자기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틴데일을 위해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런던의 주교에게 거절당한 틴데일은 런던의 부시장 몸무스의 집에 가서 자기를 도와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그는 틴데일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집에서 틴데일은 매우 착실한 사제로서 밤낮으로 연구하며 지내게 되었고 주인의 호의를 입어 잘 익힌 음식만을 먹게 되었다.

이처럼 1년 정도를 런던에 머물면서 틴데일은 이 세상의 행로가 무엇인지 차츰 깨닫게 되었으며 특히 복음 선포자라 불리는 자들의 행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그들은 교만했고 스스로 권위를 내세웠으며 특히 고위 성직자들의 견치레는 그들의 다른 행실들과 함께 그에게 큰 불쾌감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주교의 집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고 또한 영국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몸무스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지역에서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독일로 떠났다. 거기에서 이 선한 사람 틴데일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에 불타서 어떤 힘든 일이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확실성에 대한 깨달음을 자신의 영국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자기 친구 프리스와 의논하는 가운데 그는 성경이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히 읽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는 성경이 보통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평이하게 주어져서 그들 스스로 본문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친다 해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궤변이나 자기들이 고안한 전통 등으로 이 진리를 저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이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낸 경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본문을 조작하여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틴데일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 가려진 것, 바로 그것이 교회 내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토록 오랫동안 바리새인들 같은 성직자들이 가증한 행위와 우상 숭배를 행해 왔지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으므로 그것들을 찾아내어 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부패한 성직자들은 전력을 다해 성경 말씀을 짓누르려고 애를 썼으며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들이 읽는다 해도 여러 가지 궤변으로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흐리게 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각종 가증한 것들을 경멸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속박했다. 게다가 그들은 본문의 의미와는 다르게 성경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추어 마구 뜯어고쳤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것이 다 거짓임을 알고 있다 해도 그들의 교묘한 술책을 이길 방도가 없었다.

이런저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선한 사람 틴데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경을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하여 고국의 단순하고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려 하였다. 처음에 그는 독일의 함부르크로 갔다. 그러나 영국의 주교들과 사제들은 정탐꾼들을 고용하여 그의 일을 방해하였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성경을 인쇄하는 일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심지어 그는 신변에 큰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한편 쾰른에 인쇄소가 있었으므로 그는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성경을 인쇄해 줄 인쇄공을 찾아냈다. 그는 영국의 주교들과 사제들이 이 작업이 끝난 것을 알면 자기를 체포해 갈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비밀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숨을 건지려면 빨리 도망가라는 제보가 그에게 들어왔다. 술에 취한 인쇄공으로부터 그의 신약 성경이 거의 인쇄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된 로마 카톨릭 사제가 그를 체포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간신히 원고들을 챙겨 루터가 살고 있던 보름스로 도망갔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주후 1525-1526년경에 자신의 영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였다. 그때 그는 두 종류의 성경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크기가 컸고 다른 하나는 작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영국의 성직자들이 큰 성경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작은 것들은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성경들을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큰 통이나 짐짝에 옷가지나 밀가루 등과 함께 성경들을 숨겨 마치 다른 상품처럼 꾸며 영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성경들이 영국에 들어와 판매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성직자들은 항구를 조사하여 성경을 찾아냈고 찾은 족족 불태워 버렸다. 한편 런던의 주교인 틴스탈과 모어 경(Thomas More, 1478-1535)은 너무나 화가 나서 틴데일의 영어 성경을 ‘거짓되고 실수가 많은 번역’이라고 폄하했으며 또한 그의 역본을 없앨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데 그 당시 포목상이던 패킹턴이라는 사람이 틴스탈 주교와 함께 엔트워프에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틴데일을 사랑하여 그 주교에게 반대로 말을 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던 주교는 어떻게 하면 틴데일의 신약 성경을 다 사들여 불태울 수 있을지 그에게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패킹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주여! 주교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여기 있는 어떤 상인보다도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덜란드 사람들과 틴데일에게서 성경을 사들여 여기에서 판매한 외국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교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그것들을 사들이기 위해 많은 돈을 쓸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교께서 지금까지 인쇄된 것 중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을 다 차지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교는 이제야말로 이 일을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에게 말했다.

“패킹턴 선생, 부지런히 이 일을 수행하십시오. 그 성경들을 구해 주시오.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다 지불하리이다. 나는 그것들을 다 모아 성 바울 십자가 광장에서 불사를 것이요.”

이 일 뒤에 패킹턴은 틴데일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알려 주고 서로 협약을 맺었다. 그리하여 런던의 주교는 틴데일의 남은 성경을 모두 입수했고 패킹턴은 주교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으며 틴데일은 큰돈을 얻게 되었다.

그 뒤에 틴데일은 동일한 신약 성경을 한 번 더 수정한 뒤 다시 인쇄해서 이전의 세 배나 되는 양을 영국으로 보냈다. 런던의 주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패킹턴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외부에 그토록 신약 성경이 많이 돌아다닌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그것들을 다 사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패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저는 그 당시 구할 수 있는 성경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에 더 많은 성경을 인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활자와 인쇄기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쇄기까지 다 사들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대답에 주교는 웃고 말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틴데일을 도와주던 콘스탄틴은 그 당시 영국의 종교법 고문이던 모어 경에 의해 특정 이단 교리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모어 경은 그에게 물었다.

“콘스탄틴! 내가 묻는 질문에 솔직히 답변하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고소당한 다른 모든 혐의에 대해 내가 호의를 베풀 것을 약속한다. 바다 너머에 틴데일과 조이와 다른 일당이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그 사람들 중 하나이니 돈의 출처를 알고 있을 것이다. 청하건대 그들을 돕는 자가 누구인지 내게 말하도록 해라.”

이에 대해 콘스탄틴이 대답했다.

“내 주여,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겠나이다. 우리를 도운 사람은 런던의 주교입니다. 그가 신약 성경을 불태우기 위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후원금이며 위로금입니다.”

그러자 모어 경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역시 사실이군. 왜냐하면 주교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주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했으니까.”

영어 신약 성경을 6판까지 출간한 뒤에 틴데일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번역에 착수했으며 1530년에 모세 오경 번역을 마쳤다. 이와 동시에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계속 읽어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경건하고도 학문적인 서문을 작성했다.

한편 1535년에 커버데일은 틴데일의 신약 성경과 모세 오경에 근거하여 자신의 번역본을 만들고 나머지는 스스로 번역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담은 최초의 영어 성경전서를 앤트워프에서 인쇄했다. 이 성경전서가 영국에 들어갔을 때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온 영국 민족의 눈에 얼마나 큰 빛을 가져다주었는지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처음에 틴데일은 영국을 떠나 독일로 갔으며 거기에서 루터와 학식 있는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했다. 그 뒤 그는 잠시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앤트워프에서 보냈다. 틴데일의 경건한 책들 특히 그가 번역한 영어 신약 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해외로 퍼져나갔으며 경건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유익을 주었다. 그러



순교자들의 처형지로 유명한 스미스필드에서 화형당하는 순교자들



성경을 불태우는 카톨릭 사제들

나 경건치 못한 사람들 곧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현명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진리의 빛으로 인해 자기들이 행한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켰다.

그때 틴데일은 이미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번역했으므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것을 인쇄하려는 생각을 품고 함부르크행 배를 탔다. 그러나 네덜란드 해변에서 배가 좌초하는 바람에 그는 모든 책과 저작물과 필사본과 돈과 시간을 잃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른 배로 함부르크에 갔는데, 거기에는 약속한 대로 커버데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모세 오경 전체를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1529년 부활절에서부터 12월까지 경건한 과부인 엠머슨 부인의 집에 머물면서 이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당시 그 도시에 땀을 많이 흘리게 하는 병이 돌자 그는 함부르크에서의 일을 급히 끝내고는 다시 앤트워프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의 말로 된 영어 신약 성경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셨을 때 틴데일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경을 번역하면서 서문을 통해 만일 자신의 번역에서 잘못이 발견된다면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정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그는 지식이 있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번역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면 예의를 갖추어 부드럽게 자기들의 학식을 반영하고 수정할 부분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그 책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그 성경 안에 수천 개의 이단 교리가 있으며 따라서 그 책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 완전히 파기해야만 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평민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어떤 이들은 성경이 평민들 모두를 이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용하면서 틴데일의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왕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 모함하기도 했다.

틴데일은 창세기 앞에 있는 서문에서 몇몇 사항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자기의 번역본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저 위대한 책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그런 억측으로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또한 그는, 그들이 자기가 번역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일 인쇄상의 실수로 거기에 'i'라는 글자가 없는 구절을 발견하면,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큰 이단 교리라고 당당하게 말했음을 보여 주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빼앗으려는 영국 성직자들의 악랄한 계략은 너무나도 지독했다. 사실 이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틴데일이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이 같은 시도는 세상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둔 채 헛된 미신과 거짓 교리로 자기들의 야망과 탐욕을 만족시키며 또한 자기들의 명예를 왕이나 황제보다 더 높이면서 백성들의 양심 위에 올라앉아 사람들을 다스려 보려는 그들의 교만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마침내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왕의 동의를 얻어 냈고 서둘러서 주후 1535년경에 틴데일이 번역한 신약 성경의 확산을 금한다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포고했으며 이 일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더 나아가 틴데일을 자기들의 그물로 사로잡아 그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악한 계획을 실행했는지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런던의 등기소에 모인 주교들과 모여 경은 엔트워프에 있었던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틴데일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열심히 찾아내어 조사했다. 그들은 틴데일이 어디에서 누구를 접대했는지, 그의 집은 어디에 있고 그는 키가 얼마이며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부지런히 캐내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뒤에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업적을 확고하게 할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엔트워프에 있던 틴데일은 한 영국 상인의 집을 지키는 일을 하던 포인츠라는 영국 사람의 집에서 거의 1년 동안 기거했다. 한편 1535년 5월, 그곳에 필립스라는 영국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신사처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이유로 그곳에 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틴데일은 상인들과 함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 기회를 통해 필립스는 그와 친숙해지게 되었고 틴데일은 곧바로 그를 크게 신뢰하게 되었으며 자기가 머무는 포인츠의 집으로 그를 데려가기도 했다. 또 그와 함께 한두 차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틴데일은 그와 깊은 친분을 맺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를 포인츠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한편 틴데일은 필립스에게 자신의 책들과 자신이 연구하는 것들 중 비밀에 속한 것들을 보여 주었다. 참으로 틴데일은 이 배신자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인츠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필립스와 알게 되었느냐고 틴데일에게 물었다. 그러자 틴데일은 그가 정직한 사람이며 매우 학식이 있고 유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틴데일이 그에게 것처럼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본 포인츠는 아마도 필립스가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의 소개로 틴데일과 가까워졌으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필립스는 엔트워프에서 약 삼십이 킬로미터 떨어진 브뤼셀의 법정에 갔으며, 거기에서 다시 엔트워프로 오면서 황제의 변호사인 검사장과 다른 관리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때부터 삼사일 지난 뒤 포인츠는 엔트워프에서 약 이십구 킬로미터 떨어진 읍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포인츠가 없는 동안 필립스는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에게 틴데일이 안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 뒤 그는 다시 나가서 브뤼셀에서 자기가 데려온 장교들을 집 근처 거리와 문 근처에 배치했다. 정오쯤에 그는 다시 돌아와 틴데일에게 가서 사십 실링을 빌려 달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침에 이곳과 메클린 사이에 있는 통로를 지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소.”

이에 틴데일은 사십 실링을 그에게 빌려주었다.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틴데일은 참으로 쉽게 사람을 믿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이에 필립스는 틴데일에게 이렇게 말했다.

“틴데일, 오늘 저녁에 내 집에서 식사를 함께합시다.”

그러자 틴데일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마침 내가 저녁 먹으러 가는데 당신도 함께 갑시다. 그곳 사람들은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틴데일은 필립스와 함께 나갔는데 포인츠의 집에 드나드는 길은 길고 입구가 좁아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갈 수가 없었다. 틴데일은 자기 앞에 필립스를 가게 하려 했으나 필립스는 자기의 배려심을 보이기 위해 틴데일을 자기 앞에 가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키가 아닌 틴데일이 앞에 갔으며 키가 크고 잘생긴 필립스가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는 이미 문 양쪽에 장교들을 배치해 놓았고 이들은 입구에서 누가



나오는지 볼 수 있었다. 틴데일 뒤에 선 필립스는 자기 손으로 틴데일의 머리를 가리켜서 장교들이 데려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었다. 틴데일을 감옥에 가둔 뒤에 장교들은 것처럼 단순한 틴데일을 보고 큰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고 포인츠에게 말했다. 그들은 틴데일을 황제의 변호사에게 데려갔으며 거기에서 그는 식사를 했다. 그 뒤 검사장이 포인츠의 집에 와서 틴데일의 소유물 곧 그의 책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져갔다. 이로써 틴데일은 앤트워프에서 약 이십구 킬로미터 떨어진 브뤼셀 근처의 빌보르드 성(Castle of Vilvoorde)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에 홀로 남겨 된 틴데일은 변호사와 검사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답변하겠다고 말하며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또한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선포했으며 성 안에서 그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만일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겠느냐는 진술을 했다. 마침내 심문이 시작되었고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아무런 변호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칙령으로 아우그스부르크 집회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주후 1536년 10월 6일, 그는 빌보르드 성에서 사형 집행 장소로 끌려 나와 화형대에 손발이 묶인 채 화형을 당했다. 이들은 그를 화형시키면서 불로 인해 고통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목을 줄라매어 그가 사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형대에서도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처형장의 틴데일

Crude non lateat te, via praestantissima, qd de me statuti snt.  
 Quam ob rem tuaz dñationem rogatam habeo, idqz ꝑ dñm Josn,  
 vt si mihi ꝑ hęcuitę hęc manedi sit, sollicitas apud dñm  
 cōspiciam, si forte dignari velit, de rebz meis quas habet  
 mittere, calidiorē aurich, spigg am̄ panōi i capite m̄ in  
 oppōitō ꝑpetuo catarrō, qui snt. te stūidine nōnifil augetz.  
 calidiorē q̄ tramicam, nā hęc quā gēo ad vdi. nōnifil ē. ite  
 panū ad caligas reficēdas. Duplois detrita ē. cansec  
 detrite snt atqz. Ca-sanz canez q̄, si mittere velit.  
 habeo q̄ apud m̄, supra caligas ex rāstion panus  
 ad sugim̄ idūcādū. nocturna tuzela calidiorē habet dñg  
 utqz vespi. hęc nā habere hęc. Redrofi qdē ē ꝑ tenebrę  
 solitarii sēre. Maxime ante. an, hęc clementiaz  
 rogo, atqz ostēdo, vt ex aī agem velit apud dñm  
 cōspiciam, quatenz dignari velit, mihi cōcedere  
 hęc nā, vt eo sūdō tēpū cōterā. Gū tibi obligat  
 qd maxime optas, modo cū aī tue saluti fiat. Vēn  
 si aliud cōspicū de me ceptū est, an grime ꝑfōndū,  
 pānus ero, dei expectanz volūtatē, ad glōriaz grē dñi  
 mei. sēst osūsi, orig snt tūm sūng rogat ꝑty dñi  
 W Tindaly.



...제 물품들을 여기로 되돌려 보내 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선 따뜻한 모자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추위로 인해 저는 머리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계속되는 감기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감옥에서 이 증세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입고 있는 것은 너무 얇습니다. 또 제 각반을 기용 형겅 조각이 필요합니다. 제 외투는 다 닳았고 셔츠 또한 그렇습니다. ... 또한 제가 바라는 것은 저녁에 초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기가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바라는 것은, 저의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문법책,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의 시간을 히브리어 성경 연구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 겨울을 나기 전에 제게 어떤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저는 인내하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께서 늘 각하의 마음을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바라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죄로 체포되어 1535년 겨울 빌보르드 성에 감금되었던 틴데일이라틴어로 써서 성주 앞으로 보낸 편지로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의 친필 기록>

감옥에 있었던 약 1년 반 동안에 그가 간수와 그의 딸과 그의 다른 가족들을 회심시킨 것을 보면,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삶이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가 번역한 신약 성경이 이단 교리들로 가득 찼다며 대적들이 심하게 트집을 잡았으므로 틴데일은 친구 프리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의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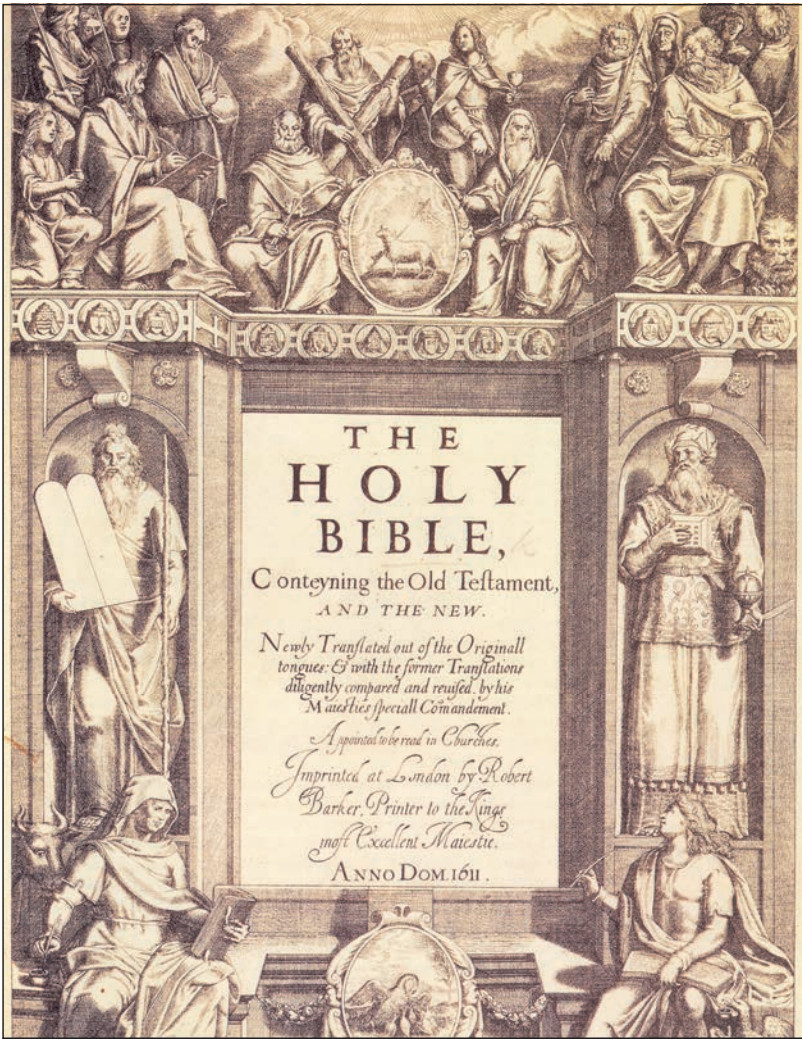
틴데일이 죽은 뒤 2년 만에 이 같은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 1538년에 영국의 헨리 8세는 각 교구의 교회에 그레이트 성경을 비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뒤 '커버데일 성경', '로저스 성경', '매튜 성경', '태버너 성경', '크랜머 성경', '비숍 성경' 등의 이름으로 여러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으나 사실 그 내용은 틴데일이 번역한 것과 거의 같았다. 또한 그의 번역은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에 70-80% 이상 그대로 반영되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여 주려 했던 틴데일의 숭고한 정신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으로 이어졌고 18, 19세기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로도 이어져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부디 이 작은 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위클리프나 틴데일 그리고 롤러드파 사람들과 왈덴시아파 사람들 같은 선구자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올바른 성경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커버데일 성경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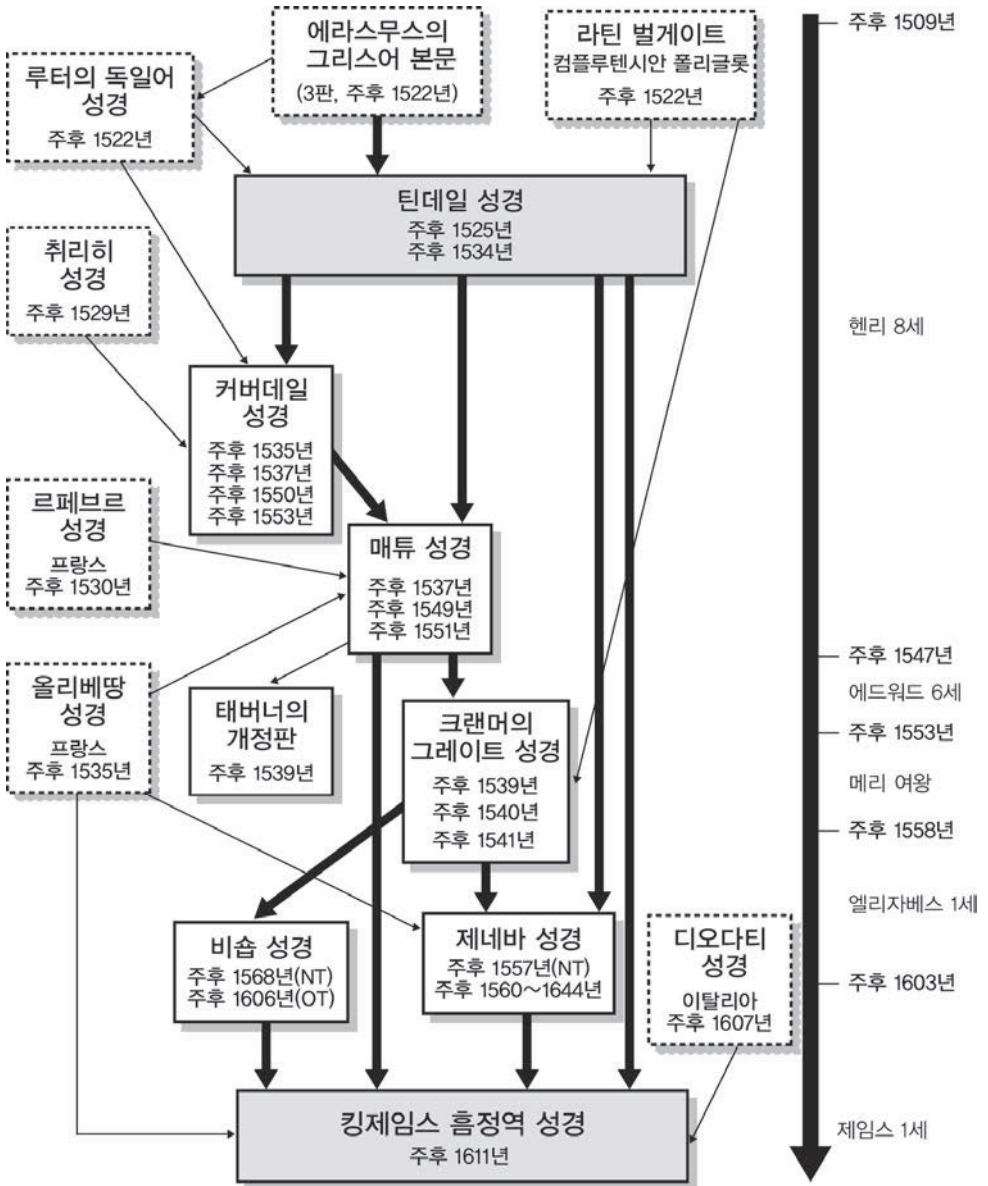


제임스 1세(1566-1625)



1611년 킹제임스 성경 표지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톰슨대역 한영성경, 기독교회사, 부록 1, 4쪽, 1989).



〈틴데일 성경을 기초로 탄생한 킹제임스 성경〉



## 진리의 우수성 설명 및 입증

#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본 부록에서는 웨이트(D. A. Waite)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며」(*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와 리플링거(G. Riplinger)의 「현대 성서와 뉴에이지」(*New Age Bible Versions*) 및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최근에 발간된 현대 역본들보다 탁월하다.

1. 본문(Original Language Texts)
2. 번역자(Translators)
3. 번역 기법(Translation Technique)
4. 신학(Theology)

한 가지씩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앞서 위의 네 가지 항목들을 다음 성경 구절과 비교하면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전3:9-11)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건물을 짓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성경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음 조건들과 비교될 수 있다.

1. 주 건축자(Master builder): 사도 바울 등과 같이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원본을 직접 기록한 사람들
2. 다른 사람들(Builders): 원본을 이용하여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람들
3. 건물을 어떻게 세우는가?(How to build): 번역의 방법 및 기술
4. 건물을 무엇으로 세우는가?(With what to build): 번역의 재료 즉 신학

하나님의 건물의 기초나 성경의 기초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번역된 성경의 질이나 우수성은 위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심지어 그 안의 내용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현대 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 질이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우수성

### 1.1 KJV의 구약 본문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롬3:1-2)

이 성경 말씀이 보여 주듯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맡겨졌고 이들 중에서 성경을 맡아 직접 손으로 복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서기관(성경 기록관, Scribe)이라고 불렸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보관하고 복사하는 일이 그 어느 일보다도 중요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서기관들은 큰 대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등과 함께 큰 권세를 지닌 집단이 되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필사 과정의 한계 때문에 성경 본문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이런 필사본에 근거한 본문을 사용하여 번역한 성경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보존을 위해 선택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인본주의자들의 막연한 생각이 상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960년, 밀러(H. 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다.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은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끈으로만 묶어야 한다.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필사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발음하여 읽어야 한다.
5.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 전에 서기관은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는데 이 이름을 쓰기 위해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뒤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고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폐기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한 뒤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됨을 믿었으므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 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8. 서기관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센 뒤,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Traditional Masoretic Hebrew Text)이다. ‘마소라’라는 말은 주후 10세기경에 처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주전 400년 이전부터 사용된 말로서 ‘전해져 내려오다’라는 뜻의 ‘마사르’(masar)에서 파생된 말이며 현재는 ‘전통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마소라’라는 말은 명사로 쓰일 때에 ‘히브리어 자음 본문’(Consonantal text)을 보존해 온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히브리어 자음 본문’은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 본문인데 자음 본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WATER’를 보면 그 안에 ‘A’와 ‘E’라는 모음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히브리 단어였다면 모음이 없는 ‘WTR’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물론 마소라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이 단어에 다른 모음들을 넣으면 ‘WAITER’와 같이 전혀 다른 뜻을 갖는 단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 주고 단어들을 보존하기 위해 마소라들은 모음 표시를 했다. 예를 들어, 자음 밑에 있는 ‘t’는 ‘아’(ah)라는 발음을 갖고, 점이 세 개 있으면 ‘에’(eh), 점이 두 개 있으면 ‘아이’(ay), 그리고 점이 하나 있으면 ‘에에’(ee) 등으로 발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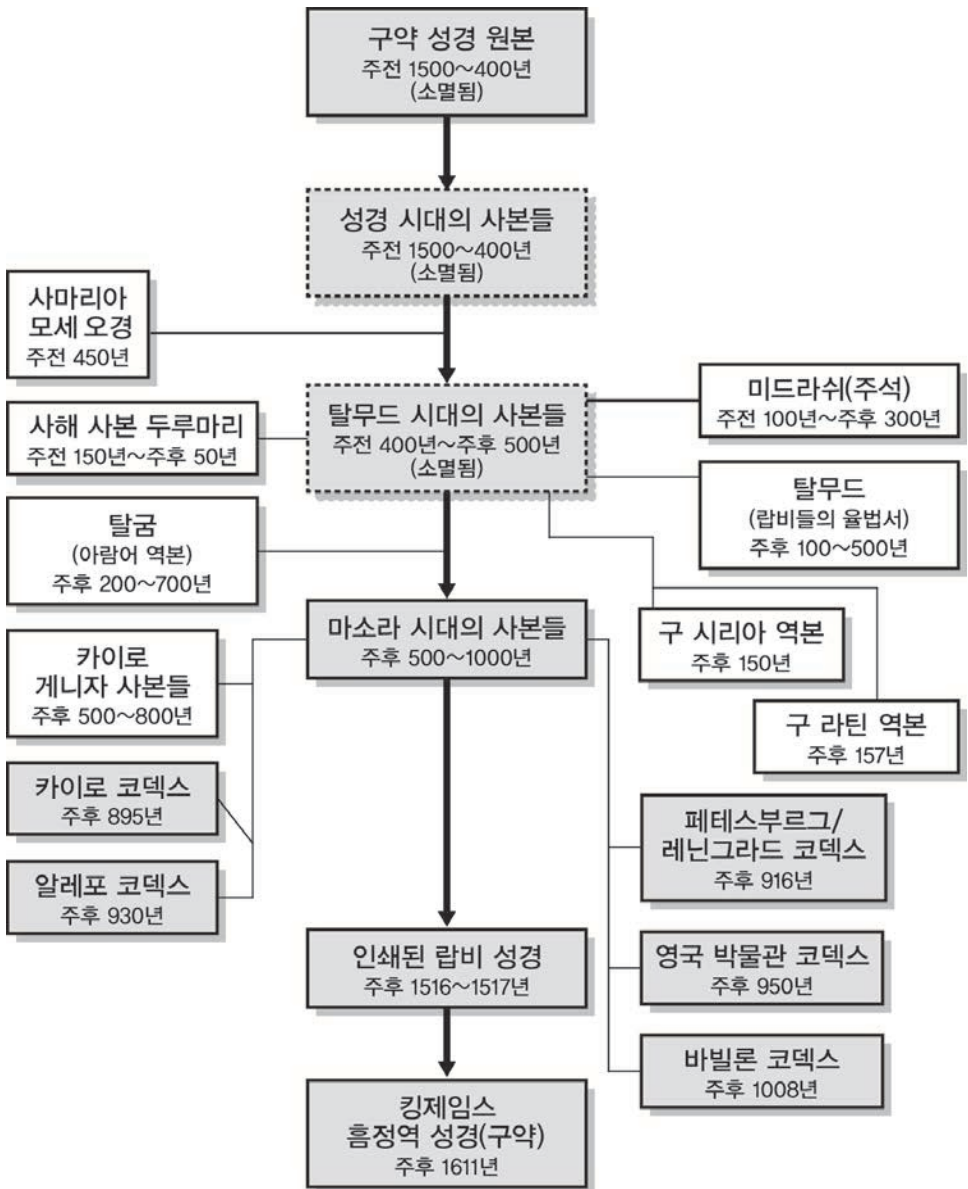
이 같은 기호들은 ‘읽는 것을 도와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마트레스 렉서니스’(Matres lectionis)라 불리며, 이런 기호들을 통해 이방인이나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단어를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WATER’와 ‘WAITER’는 이런 기호들에 의해 구분이 된다. 마소라들은 이처럼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하고 거기에다 모음 부호를 달아 준 사람들이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일이 매우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소라들은 주후 500~1000년경에 매우 많이 존재했으며, 주후 600~700년경에 자음 본문에 모음 부호를 달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이 만든 본문을 ‘마소라 본문’ 즉 ‘전통 본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 1.2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구약 본문

신미국표준역(NASB) 서문에는 번역자들이 키텔(Rudolf Kittel, 1853-1929)의 「Biblia Hebraica」 최신판(3판)과 최근의 어휘 사전, 히브리어와 동일한 기원을 지닌 다른 나라의 말들, 그리고 사해 사본 등에 기초해서 NASB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NASB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이용하여 번역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키텔과 칼레(Paul. E. Kahle, 1875-1964)의 1937년판 「Biblia Hebraica」에는 페이지마다 15~20군데의 수정 사항이 각주에 들어 있으므로 구약 성경 전체에 최소한 20,000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할진대 과연 이것을 보존된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킹제임스 흠정역 구약 성경〉

신국제역(NIV) 서문 역시 번역자들이 키텔의 「Biblia Hebraica」(3판)와 사해 사본, 사마리아 모세 오경, 본문을 수정하는 데 사용된 고대 성경 기록관들의 전통, 본문 여백에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본문들, 70인역,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등을 사용하여 구약 본문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뉴킹제임스역(NKJV) 서문 역시 번역자들이 1967/1977년판 「Stuttgart Edition of Biblia Hebraica」를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들어진 본문이므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라고 불리며 내용 면에서는 키텔의 「Biblia Hebraica」(3판)와 거의 비슷하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키텔의 본문은 보통 「Biblia Hebraica Kittel」 즉 「BHK」라고 불리며 NKJV가 사용한 본문은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즉 「BHS」라고 불린다. 이 「BHS」 역시 「BHK」처럼 페이지마다 각주에 수정 사항이 들어 있고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약 20,000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 NKJV 번역자들은 자신들이 종종 KJV의 근간이 된 1525년판 「봄베르그 마소라 본문」과 비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70인역,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사해 사본 등을 참고하고 그것들과도 비교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NKJV 역시 ‘전통 마소라 본문’ 외에 다른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3 마소라 사본들은 모두 동일한가?

새로 출간되는 성경들에 대한 광고를 보면 NIV, NASB 번역자들도 자신들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여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은 이들도 KJV의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한 것으로 믿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소라 본문에는 두 종류가 있고 KJV의 마소라 본문과 NIV, NASB 등 현대 역본의 마소라 본문은 서로 매우 다르다. 이들이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하여 KJV를 읽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KJV의 히브리어 본문과 현대 역본들의 히브리어 본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516-1517년에 유대인 랍비들이 출간한 구약 성경은 ‘다니엘 봄베르그판」(*Daniel Bomberg Edition*)이라 불리며 ‘제1 랍비 성경」(*The Firs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불린다. 그 뒤 1524-1525년에 제2판이 출간되었는데 벤 카임(Jacob Ben Chayyim)이 편집하였다 해서 이 본문은 ‘벤 카임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라 불리며 ‘제2 대(大) 랍비 성경」(*The Second Grea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불린다.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은 출간된 뒤 400여 년이 지나도록 표준 마소라 본문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KJV 번역자들은 바로 이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했다.

한편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제공한 키텔(Rudolph Kittel, 1853-1929)은 1906년과 1912년에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Kittel*, BHK) 1, 2판을 편찬해 내면서 본문 비평 장치(Textual critical apparatus)라 불리는 각주들을 이용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15~20군데씩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각주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에 근거한 것들이다.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은 주후 1008년에 만들어진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레닌그라드 사본은 ‘전통 마소라 본문’과 매우 다르다.

1929년에 키텔이 죽은 뒤 칼레(Paul. E. Kahle, 1875-1964)는 전격적으로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본문을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으로 바꾸고는 키텔의 이름을 붙여서 1937년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을 출간하였다. 이 같은 본문 교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20,000군데가 수정된 것을 뜻한다. 키텔의 작품이 아님에도

보통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BHK*)으로 불리는 이 성경 즉 비전통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에 근거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마침내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로 개정 출간되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KJV를 제외한 NASB, NIV, 신개역표준역(*NRSV*), NKJV 등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이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한 마소라 본문이 유대인들의 ‘전통 마소라 본문’인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증오한 키텔의 「BHK 3판」과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지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BHS」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학 대학에서 성경 본문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의 핵심은 구약 성경의 경우 어떤 본문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닌 필사본이었음에도 그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록된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분명히 위 구절 안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it is written) 즉 ‘그 구절이 현재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가 기록한 자필 원본은 없어졌지만 모세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이 당시에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말씀’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말씀(단어)이 보존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손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 성경이 자필 원본과 똑같음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 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란다(마5:17-18; 눅24:27; 눅24:44 등).

#### 1.4 KJV의 신약 본문

KJV 신약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다. ‘공인 본문’은 누가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公認本文)이 아니고 누구나 이를 공통적으로 함께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共認本文, *Received Text*)이며 따라서 이것은 모두가 수용했다는 의미의 ‘수용 본문’(收容本文)이라고도 불린다.

‘공인 본문’은 KJV 신약 성경 번역의 토대가 되었으며 1598년에 출간된 베자의 제5판이 사용되었다. ‘공인 본문’의 특징은 신약 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것이다.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 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며, 로마 카톨릭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 (혹은 동방) 본문’이라고 하고,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본문’이라고도 한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사용된 그리스어 본문은 상당수의 서로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 편집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써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베자(Theodore Beza), 스테파누스(Robert Stephanus)와 엘제비어 혹은 엘지버 형제(Elzevir Brothers), 아브라함파 보나벤퉈(Abraham and Bonaventur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에라스무스는 다섯 번에 걸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1516년의 제1판에 이어, 1519년에는 제2판이 나왔는데 그것은 마르틴 루터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의 독일어 번역본에 사용했던 판이다. 그 뒤 그의 제3, 제4, 제5판은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각각 출간되었다. 에라스무스의 작품은 매우 훌륭하여 지금까지 수 세기 동안 모범 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스테파누스는 1546년, 1549년, 155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1년에

모두 네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베자도 1565년, 1582년, 1588년 그리고 1598년에 걸쳐 여러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KJV 번역자들은 1598년의 베자 성경과 1550년과 1551년의 스테파누스 성경을 주요한 본문으로 사용했다. 1611년에 KJV가 출간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엘제비어 형제가 1624년, 1633년 그리고 1641년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는데 이들은 에라스무스의 표준을 따랐던 베자의 판을 충실히 따라가며 본문을 편집했다. 한편 이들은 1633년에 출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서문에 그때까지의 본문들을 개선하여 얻은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문구를 새겨 넣었는데, 그 문구는 라틴어로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이며, 그 뜻은 “사람들이 수용한 책으로부터 입수한 본문에 따르며”이다. 바로 이 구절에서 ‘공인 본문’ 혹은 ‘수용 본문’(Received Text 혹은 *Textus Receptus*)이라는 명칭이 탄생하였다.

### 1.5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신약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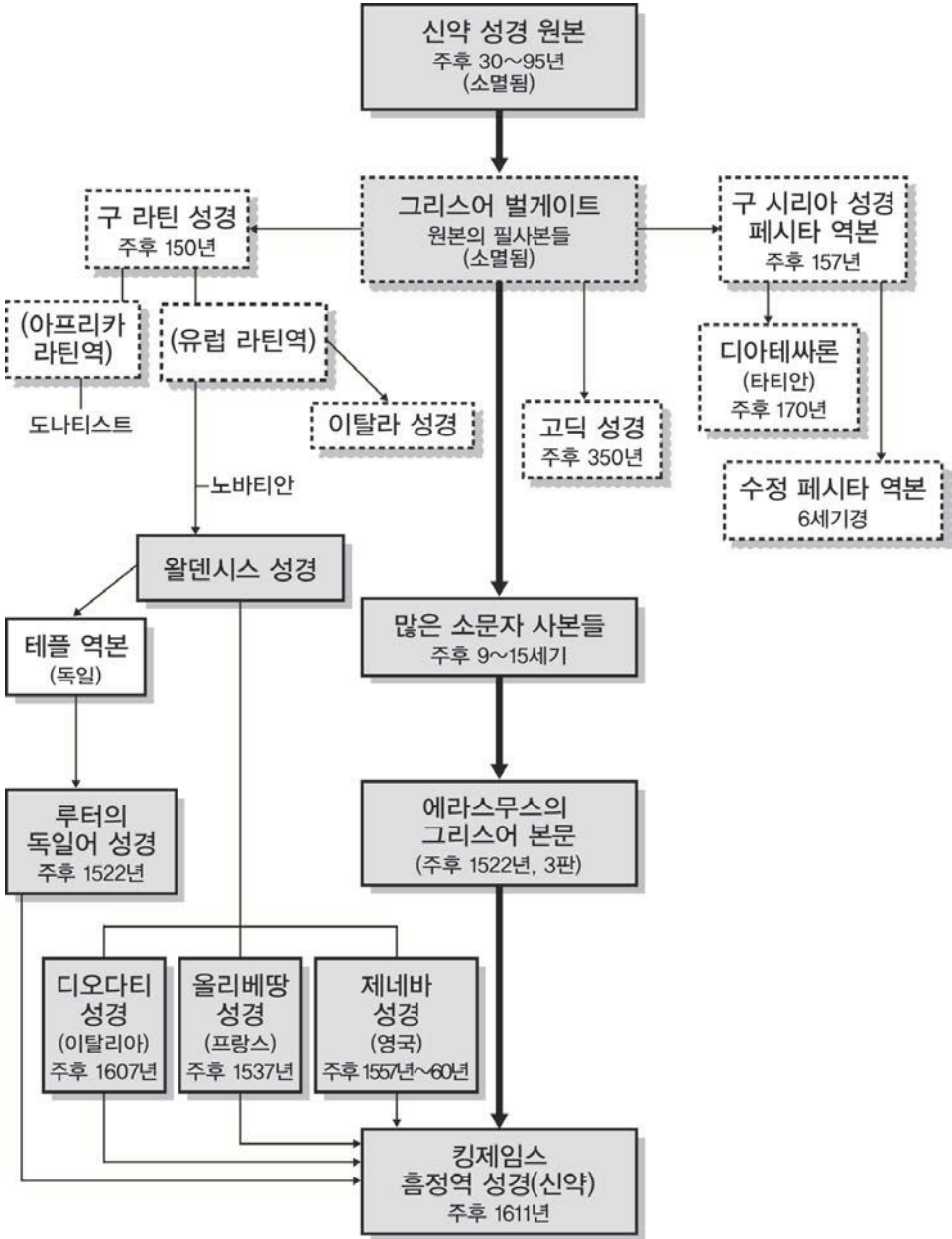
사도 시대부터 약 1,900년 동안 신약 교회는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왔으며 특히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에는, 비록 여러 개의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60년 동안 다른 영어 성경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또한 KJV는 온 세계로 퍼져 나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보편적 성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신 성경’이라는 인식하에 ‘권위역본’(Authorized Version)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불안을 느낀 카톨릭교회에서는 소위 본문 비평이라는 도구를 도입하여 성경을 단지 역사책처럼 취급함으로써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으며, 이를 위해 허영에 들뜬 신학자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사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1881년에 영국 성공회에 속한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Hort)라는 두 학자들은 ‘공인 본문’에서 무려 5,604군데나 수정하여 ‘비평 본문’이라는 개악된 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빼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한 단어들은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본문에 나오는 140,521개 단어의 7%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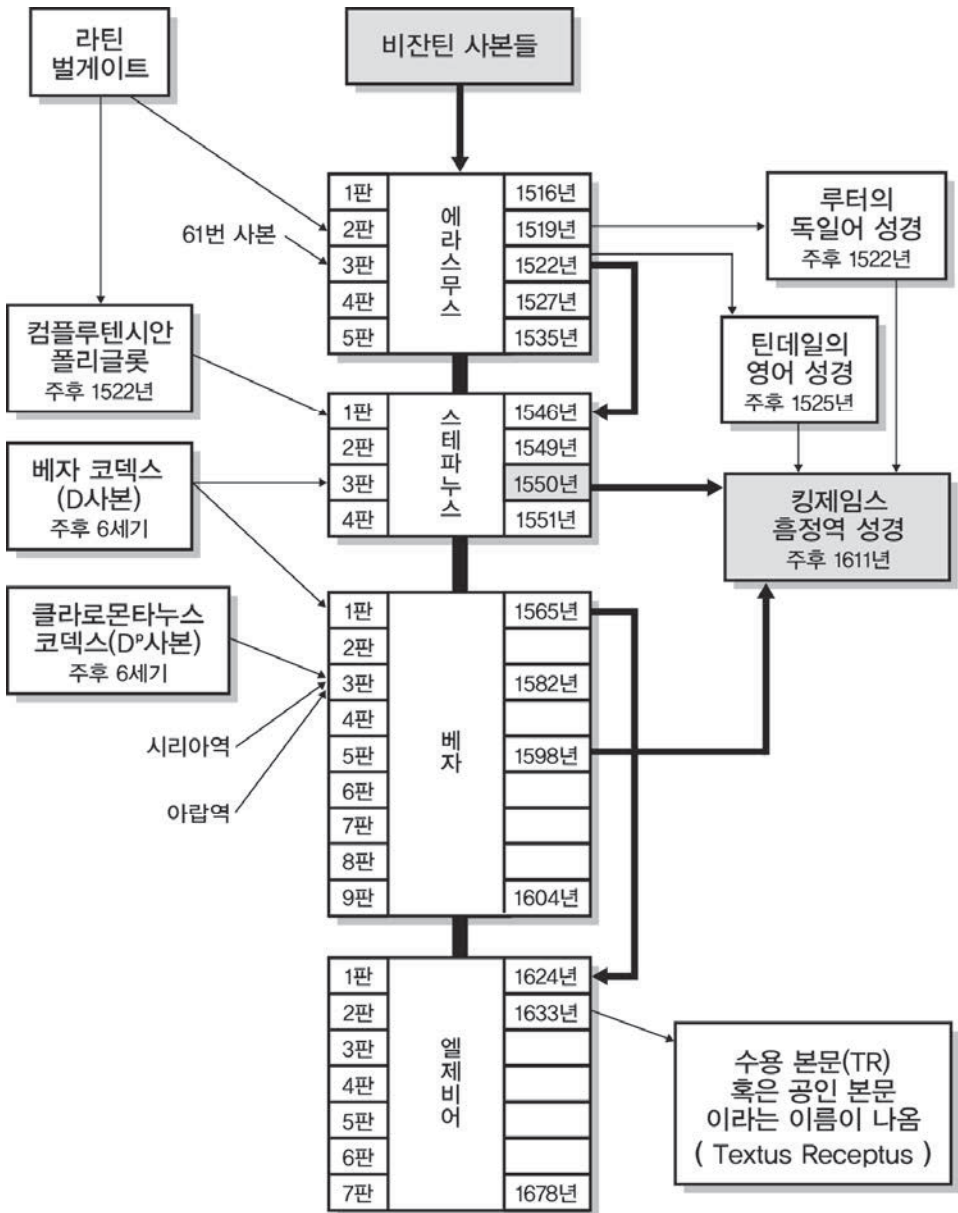
웨스트코트는 영국 성공회 주교였으며 호르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강신술 등에 심취한 영성주의자들이요, 지옥이나 마귀 등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창세기 기록을 신화로 생각한 인본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이 변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비평 본문’ 비교〉

	공인 본문	비평 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군데 수정: (1,952군데 삭제, 467군데 추가, 3,185군데 변경)
총 페이지 수	647	9,970개 단어 변경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개 단어 변경
변경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변경
변경 분량	없음	총 46페이지에 해당함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성경〉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성경>

1988년에 무어맨(Jack Moorman) 박사는 '공인 본문'과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된 「네슬레/알란드판」(*Nestle/Aland Edition*)의 그리스어 본문의 단어 수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네슬레/알란드판」의 본문이 '공인 본문'에 비해 2,886개 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본문'이 1,952개 단어를 삭제한 데 비해 네슬레와 알란드의 본문은 그보다 934개 단어를 더 삭제하였다. 이만큼 단어가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후서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대 역본을 읽으면 그만큼 짧은 성경을 읽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편 이들은 단순히 단어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뉴에이지 신학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수학에서 평면이나 입체를 배울 때 두 개의 사물이 같은가 다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리를 이용한다.

주어진 어떤 것과 동일한 두 개의 사물은 서로 동일하다.

이 규칙을 성경 번역에 적용해 보면 NIV든 NASB든 그 역본들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본문이 '공인 본문'과 5,600군데나 다르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1,900년 동안 보존해 온 '공인 본문'에 근거를 둔 KJV와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NIV나 NASB를 손에 들고 이것이 영어로 보존된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신약 성경의 모든 책에서 200여 구절을 발췌하여 여러 역본의 순수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의 맨 오른쪽 열은 비교 대상인 200 구절 중에서 변경된 구절 수를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공인 본문'에 기초한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빼고는 모든 현대 역본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는 「박사성경」(정동수 저,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출간)을 참고하기 바란다.

## 1.6 역사적 증거들

다음 사실들은 '공인 본문'(TR)이 역사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본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 A. 주후 33-100년 사이의 사도 교회 시대

- (1) 초기의 사도 교회들이 다 TR을 사용했다.
- (2) 팔레스타인에 있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3) 안디옥의 시리아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B. 주후 100-312년 사이의 초대 교회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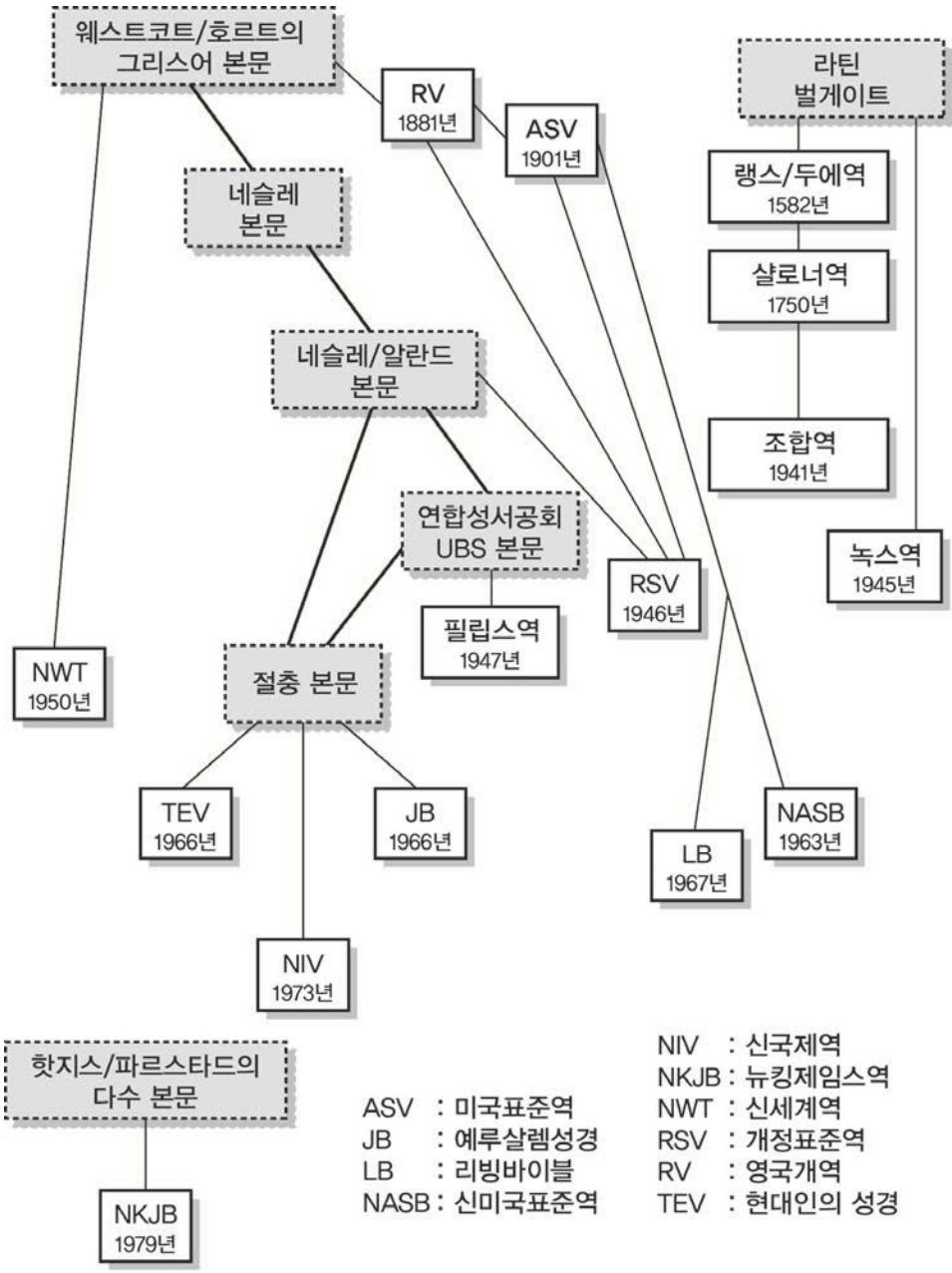
- (4) 페시타 역본이 TR을 사용했다.
- (5) 파피루스 66번이 TR을 사용했다.
- (6) 북이탈리아의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7) 남프랑스 골 지방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8) 영국의 켈트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9)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0) 왈덴시아파 사람들의 교회 이전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11) 왈덴시아파 사람들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신약 성경 역본 비교: 200구절〉

	신약 성경 역본	변경/ 삭제
1	「한글개역성경」( <i>Korean Revised Version</i> )	177
2	「신영어역」( <i>New English Bible, NEB</i> )	197
3	「신국제역」( <i>New International Version, NIV</i> )	195
4	「개정표준역」( <i>Revised Standard Version, RSV</i> )	189
5	「버클리역」( <i>Berkeley Version</i> )	185
6	「위마우스역」( <i>Weymouth's in Modern Speech</i> )	184
7	「신미국표준역」( <i>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i> )	183
8	「현대인의 성경」( <i>Good News for Modern Man</i> )	182
9	「월리엄스역」( <i>Williams' New Testament</i> )	180
10	「패닌역」( <i>Ivan Panin's Numeric New Testament</i> )	180
11	「굿스피드역」( <i>Goodspeed's American Translation</i> )	179
12	「모팻역」( <i>Moffatt's New Translation</i> )	175
13	「우에스트역」( <i>Wuest's N.T.</i> )	169
14	「증보역」( <i>Amplified New Testament</i> )	165
15	「20세기역」( <i>Twentieth Century N.T.</i> )	161
16	「필립스역」( <i>Phillip's New Testament</i> )	142
17	「다비역」( <i>Darby's Translation N.T.</i> )	138
18	「리빙 바이블」( <i>Living Bible Paraphrased</i> )	130
19	「신조합역」( <i>New Confraternity N.T.</i> )	119
20	「놀리역」( <i>Norlie's New Translation N.T.</i> )	62
21	「람사역」( <i>Lamsa's Eastern Text N.T.</i> )	49
22	「웨슬리역」( <i>John Wesley's Translation N.T.</i> )	43
23	「루터의 독일어 성경」( <i>Martin Luther's German N.T.</i> )	0
24	「영어 킹제임스성경」( <i>King James Version N.T.</i> )	0

(마1:25; 5:44; 6:13; 6:27; 6:33; 8:29; 9:13; 12:35; 12:47; 13:51; 15:8; 16:3; 16:20; 17:21; 18:11; 19:9; 19:17; 20:7; 20:16; 20:22; 21:44; 23:14; 25:13; 27:35; 28:2; 28:9; 막1:1; 1:14; 1:31; 2:17; 6:11; 6:16; 6:33; 7:8; 7:16; 9:24; 9:42; 9:44; 9:46; 9:49; 10:21; 10:24; 11:10; 11:26; 13:14; 13:33; 14:68; 15:28; 16:9-20; 눅1:28; 2:33; 2:43; 4:4; 4:8; 4:41; 6:48; 7:31; 9:54; 9:55; 9:56; 11:2-4; 11:29; 17:36; 21:4; 22:20; 22:31; 22:64; 23:17; 23:38; 23:42; 24:3; 24:6; 24:12; 24:49; 24:51; 요1:14; 1:27; 3:15; 4:42; 5:3; 5:4; 6:47; 6:69; 7:53; 8:16; 9:35; 11:41; 16:16; 17:12; 20:29; 행2:30; 7:30; 7:37; 8:37; 9:5,6; 10:6; 15:18; 16:31; 17:26; 20:25; 20:32; 23:9; 24:6-8; 24:15; 28:16; 28:29; 롬1:16; 1:29; 8:1; 9:28; 10:15; 10:17; 11:6; 13:9; 14:6; 14:21; 15:29; 16:24; 고전1:14; 5:7; 6:20; 7:5; 7:39; 10:28; 11:24; 15:47; 16:22; 16:23; 고후4:6; 4:10; 5:18; 11:31; 갈1:15; 3:1; 3:17; 4:7; 6:15; 6:17; 엡3:9; 3:15; 5:30; 6:1; 6:10; 빌3:16; 골1:2; 1:14; 1:28; 2:11; 3:6; 살전1:1; 2:19; 3:11; 3:13; 살후1:8; 딤페전1:17; 2:7; 3:16; 4:12; 6:5; 딤페후1:11; 4:1; 4:22; 딤페1:4; 몬1:6; 1:12; 히1:3; 2:7; 3:1; 7:21; 10:30; 10:34; 11:11; 약5:16; 벰전1:22; 4:1; 4:14; 5:10; 5:11; 벰후2:17; 3:9; 요일1:7; 2:7; 4:3; 4:9; 4:19; 5:7-8; 5:13; 유1:25; 계1:8; 1:11; 2:13; 5:14; 6:1; 8:13; 11:17; 12:12; 12:17; 14:5; 16:17; 20:9; 20:12; 21:24)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과 현대 역본들>

C. 주후 312-1453년 사이의 비잔틴 시대

- (12) 4세기의 「고딕역」이 TR을 사용했다.
- (13) 4, 5세기의 'W 코텍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4) 5세기의 'A 코텍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5) 5,255개의 사본 중 5,210개의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6) 그리스 정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7) 현시대의 그리스 정교회 역시 오직 TR만을 사용한다.

D. 주후 1453-1831년 사이의 초기 현대 시대

- (18) 종교개혁 시대의 모든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9)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0) 1522년의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 TR을 사용했다.
- (21)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2) 1525년의 「틴테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3) 1535년의 프랑스의 「올리베땅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4) 1535년의 「커버테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5) 1537년의 「매튜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6) 1539년의 「태버너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7) 1539-1541년의 「그레이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8) 1546-1551년의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9) 1557-1560년의 「제네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0) 1568년의 「비숍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1) 1569년의 「스페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2) 1598년의 「베자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3) 1602년의 「체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4) 1607년의 디오다티의 「이탈리아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5)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6) 1624년의 엘제비어(혹은 엘지버) 형제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1.7 사본들의 증거

1967년까지 존재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의 수는 모두 5,255개이다. 이런 사본들에는 81개의 파피루스 사본과 267개의 대문자 사본, 2,764개의 소문자 사본, 2,143개의 기도문(혹은 교독문) 등이 있다. 다음 표는 이런 사본들이 어떤 본문을 지지하는지 잘 보여 준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는 사본들의 99%가 '공인 본문'을 지지한다. 이 사실은 초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공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필사하여 각 지역에서 사용했음을 잘 보여 준다.

〈사본들의 본문 지지도〉

사본 종류	개수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웨스트코트/호르트 및 네슬레/알란드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파피루스	81	68(84%)	13(14%)
대문자 사본	267	258(97%)	9(3%)
소문자 사본	2,764	2,741(99%)	23(1%)
기도문 등	2,143	2,143(100%)	0(0%)
합계	5,255	5,210(99%)	45(1%)

지금까지 수정된 적이 없는 '공인 본문'과는 달리 1898년에 처음 만들어진 네슬레의 그리스어 성경은 2012년까지 27번이나 판을 개정하여(현재 28판) 평균 4.2년마다 새로운 판이 개정되어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성경을 뜯어고치려 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배도한 사람들이다.

특히 알란드(Kurt Aland, 1915-1994)는 배도한 독일인으로서 독일의 뮌스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였다. 그는 '공인 본문'을 믿지 않고 '네슬레/알란드판' 편집 위원회의 의장으로 일하였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의 90% 정도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하여 보관했다. 그는 '공인 본문'과 일치하는 사본을 발견할 때면 무조건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본이 과거의 어떤 사본을 베낀 형편없는 사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며 사본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을 모두 한 덩어리로 묶어 그 개수에 상관없이 단일 증거로만 사용하려 한다.

이들이 이 같은 철학을 수용한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주후 250~350년 사이에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렸고 이때에 그들이 자기들이 선호하지 않은 사본들은 모두 없애고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만을 간직하기로 했다는 해괴망측한 이론을 폈는데 알란드와 그의 동료들은 바로 이같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상상 속에서 꾸며 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날조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로마 카톨릭주의에 심취되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영성주의자들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금은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들 즉 전체 사본 중 1%에 해당하는 사본들에 근거를 둔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 2.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우수성

### 2.1 KJV 번역자들의 우수성

KJV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57명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학문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고 관료나 학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언어에 정통해야만 했다. 이들의 원어 실력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16, 17세기경 조선 왕조에서 출세를 하려면 한문 실력이 뛰어나야만 했으며 따라서 유서 있는 집안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의 중국 고전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게 했다.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중국 고전을 읽어 술술 외는 사람과 성장한 뒤 대학에 가서 중국 고전을 공부한 21세기의 중국 고전학자를 비교하면 누가 더 중국 고전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자명하지 않은가?

영어 성경 번역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서부터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과 그리스어 고전을 읽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고 암기하는 사람과 장성하여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배운 현대 학자를 비교하면 누가 더 원어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21세기의 현대인들과는 달리 16, 17세기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오락이 그리스어 놀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현대 원어학자들이 KJV가 출간되던 시대의 학자들과 비교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 57명이 모여서 번역 작업을 했다면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만 할 것인가?

KJV 번역자들이 기술한 「역자들이 독자에게 드리는 글」(*The Translators To the Reader*)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탁월한 학자일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1. 이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진리가 없이 어떻게 경건함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진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성경기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가 성경기록을 탐구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성경기록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성경기록에 미숙하거나 성경기록을 더디 믿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다. 성경기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2. 이들은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성경은 무기이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이다. 여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그저 담아 두기만 하는 만나 향아리나 기름 단지가 아니며 한두 끼분의 양식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쏟아져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이요, 기름 단지로 가득한 저장고와 같다. 이것에 의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것에 의해 우리의 죄의 빛이 탐감된다.

3. 이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해야만 함을 잘 알고 있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또한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물 길을 그릇 없이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4. 이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비늘을, 우리 마음에서 베일을 벗기신다. 또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참으로 우리의 성정을 고치신다. 그 결과 우리는 금과 은보다 더 그것[말씀]을 사랑할 수 있으며 참으로 끝까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 오 그토록 위대한 것들을 헛되이 받지 말며 하나님의 그토록 큰 구원을 경멸하지 말라. 돼지들처럼 그토록 귀한 보물을 발로 짓밟지 말며 개들처럼 거룩한 것들을 물어뜯고 능욕하지 말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뻗으시고 부르실 때에 '오 하나님여, 내가 여기 있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 [바로] 그것은 복된 일이며 우리를 결국 영존하는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 2.2 NIV, NASB 등 현대 역본 번역자들의 열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책을 저술하는 작가든,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든, 혹은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든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이 구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번역에 임한 KJV 번역자들의 작품과 그에 반해 성경을 단지 하나의 고대 작품이나 신화 정도로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자기 뜻대로 성경을 번역한 NIV 등 현대 역본들 편집자들의 작품이 어떨지 금방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제 현대 역본 편집자들과 이들에게 본문을 제공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사상 및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자.

- 수정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비평 본문'의 저자인 호르트의 창세기관, 진화론관, 연육관, 속죄관, 세례관 등을 살펴보자.

나는 에덴동산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아담의 타락도 영국의 시인 콜리지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 개개인의 타락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윈에 대해 읽어 봤소? 그의 이론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소. 어찌 됐든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그러나 나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끈 책은 다윈의 것이요. 비록 그것에 대해 남들이 무어라 할지 몰라도 그 책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요.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요.

나는 모리스가 말로써 연육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 당신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세 가지 주요한 논점에서는 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영원은 기간과 무관하다. (2) 회개의 힘은 현생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3)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할 것인지, 아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현시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둘째 사실인 연육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학을 영적인 일로 해석하지 않는 것 즉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영아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인임을 보장해 줍니다.

- 수정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비평 본문'의 또 다른 저자인 웨스트코트의 창세기관, 기적관,

기도관 등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세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 주고 있음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사실 나는 시(詩)가 역사 기록보다 수천 배나 더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은 읽어 본 적이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느끼며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몇몇 다른 감독들과 의논했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관하여 우리 교회가 취할 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에서 교회 전체와는 별개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 때에는 그러한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 NIV의 주 편집자 팔머(Edwin Palmer, 1922-1980)는 자신이 편집한 NIV가 가르치는 이단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랑한다.

NIV는 현재 몇몇 정통 기독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큰 오류 즉 '거듭남이 오직 믿음에 달려 있으며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개념임을 보여 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분명한 구절은 사실상 성경에 거의 없다.

• 자신의 동료들에 의해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의 중보자'(종교통합 주도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샤프(Philip Schaff, 1819-1893)는 「동서양 저널」(*East-West Journal*)이 '새 시대 운동과 동서양의 합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칭했던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ASV, NASB를 포함한 새 역본들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이 변경한 믿음의 신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의 변화들 - 즉 자신이 변경한 것들 - 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들은 반드시 새로운 신학의 보물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 '새' 역본 편집자들은 그리스어 어원을 연구하기 위해 게르하르트 키텔의 「신약성경 신학사전」을 사용했다. 키텔(Gerhard Kittel, 1888-1948)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의 저자 루돌프 키텔의 아들로, 히틀러 추종자이자 나치당 당원이었으며 적극적으로 반유대주의를 주장한 학자였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는 전쟁 관련 소송에 회부되었고 글과 연설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NIV 편집위원회의 몰렌코트 박사(Virginia Mollencott, 1932-2020)는 “동성연애(Lesbianism)는 항상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왔다.”고 자랑스레 말한다(1991년 6월호 성공회 「위트니스」지). 그녀가 동성연애를 찬성하기 위해 저술한 「동성연애는 내 이웃인가?」라는 책은 성경이 '매춘', '폭력에 의한 강간의 강간' 등과 같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들만을 책망하며, '동성끼리의 진실한 동성연애'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실 그녀의 이 같은 사상이 그대로 NIV에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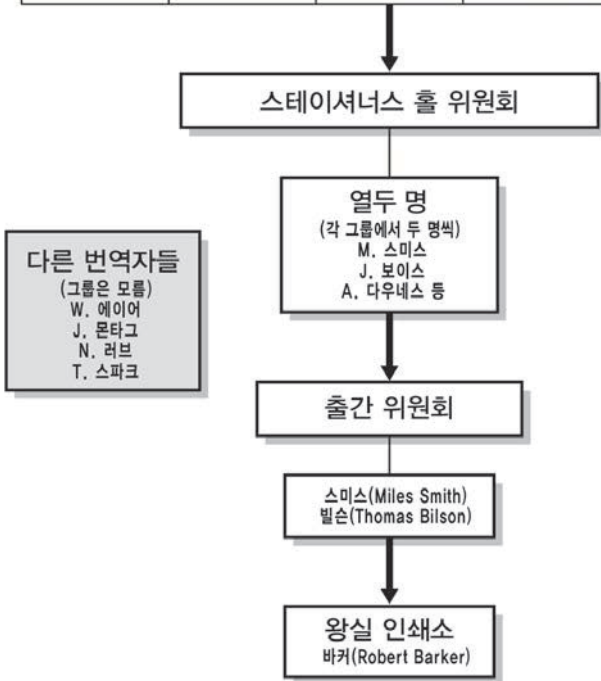
결국 '의(義)를 '부(副)로, '십자가'를 '왕관'으로, '새로운 창조'를 '모방'으로 대체한 '새로운' 역본들로부터 '새로운' 기독교가 태동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 역본들의 열매이다.

### 3. 킹제임스 성경 번역 방법의 우수성

#### 3.1 KJV의 번역 방법

KJV 번역자들은 현대 역본 번역자들이 취한 번역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팀워크를 이루어 번역을 했다. 57명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번역했고 각 그룹은 두 조로 나뉘었으며 한 조의 인원은 대략 7명 정도였다.

- 1. 웨스트민스터 그룹(2조); 2. 옥스퍼드 그룹(2조); 3. 케임브리지 그룹(2조)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KJV의 경우 각각의 번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직접 번역해야 했다는 것이다. 즉 57명이 모두 자기가 맡은 것을 직접 번역해야 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현대 역본의 경우 편집위원 중에서 소위 실력이 있다는 몇몇 학자들만이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단지 이름만을 빌려주거나 혹은 기껏해야 교정을 보거나 다른 역본들과 비교하거나 하는 등 사소한 일을 한다.

그러나 KJV의 번역자 57명 모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을 직접 번역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번역을 완성하기 전에 작고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끝까지 남은 50여 명의 학자들이 작업을 인수하여 그 책임을 완수했다.

한편 이들은 팀워크로 일하면서 한두 사람만의 사사로운 의견은 배제하고 오직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을 신실하게 옮겼다. 팀워크를 통한 번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그룹의 첫째 조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12권의 책을 번역했는데 최종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에 속한 7명 모두가 각각 12권 모두를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스스로 번역해야 했다(이 과정에서 본문을 최소한 7번 읽어야 함).
2. 그 뒤 7명이 모여서 검토했다(최소한 1번을 같이 읽음).
3. 그 뒤 다른 조로 보냈다(나머지 다섯 조에서 최소한 5번을 함께 읽음).
4. 끝으로 각 조에서 두 명씩 선출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했다(이 과정에서 최소한 2번을 읽음).

이렇게 철저한 과정을 거치며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원어로 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14번 이상 검토하며 읽고 번역한 결과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즉 1611년 처음 발간된 이래 단 한 차례의 개정 작업도 거치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현대 역본 편집자들 중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하여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던 말인가? 또한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역본을 KJV 번역자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14번 이상 읽고 검토했던 말인가?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NIV 등은 컴퓨터 시대에 출간되었지만 나오기가 무섭게 개정되고 있다.

마차에 원고를 싣고 다니며, 직접 손에 펜을 잡고 잉크로 글을 썼던 17세기 초반에 나온 성경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 직접 번역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KJV 번역자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단지 불완전한 사람들 사용해서 자신의 완전한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고 믿는다.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부터 KJV로 번역될 때까지 불완전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되었으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손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을 원본과 동일한 성경으로 읽고 인정하셨다.

### 3.2 KJV의 문자적 일치 및 형식적 일치 기법

영어 KJV 번역자들은 '축자적 일치 방법'(Verbal equivalence method)과 '형식적 일치 기법'(Formal equivalence technique)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과 기법을 사용하면, 원어의 형식과 단어 자체가 거의 그대로 영어로 옮겨질 수 있다. 따라서 역으로 번역하게 되면



원래의 글로 되돌아가게 된다. 물론 원어와 수용 언어가 다르므로 이 기법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영어와 원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There is one God.”

대다수 한국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구절을 다시 영어로 되돌리면 다음과 같다.

“God is one person.”

이제 원래의 영어 구절과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을 비교해 보면 그 둘이 서로 완전히 다름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증명해 주는 구절이 되고 만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번역은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곧 아버지 하나님만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다. 삼위일체이신 그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세 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세 분이 하나이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으로는 도저히 여호와의 증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이루는 번역이 될까? 그런 번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 하나님이 계시느니라.”(흠정역)

이렇게 번역하면 어색하지 않으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번역이 옳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마귀들이 무엇을 믿고 떠는가? 대다수 한국어 성경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떠는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대로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떠는가? 그들이 떠는 이유는 자기들을 심판하실 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원어 그대로 교리에 맞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 ‘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번역이야말로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고자 했던 내용이다.

한편 이 구절에 나오는 ‘한’(one)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I and my Father are one)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쓰신 바로 그런 의미의 ‘하나’(one)로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

위의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에서 문자와 형식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KJV 번역자들은 바로 이 같은 문자와 형식의 일치 기법을 준수하여 원어에서 영어로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번역했다.

### 3.3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동적 일치 기법

한편 대다수 현대 역본 편집자들은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무시하고 소위 ‘동적 일치 기법’(Dynamic equivalence technique)을 이용하여 성경을 번역했다. ‘동적’이라는 말이 ‘움직이는, 변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번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식에 상관없이 번역을 하게 된다. 특히 번역자가 소설을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바꾸어 뜻만 전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의역’이라 불리며 의역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리빙 바이블’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동적 일치 기법’의 창시자는 누구일까? 이 기법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은 바로 사탄 마귀였다. 동적 일치 기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3.1) 변경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것을 변경하여 이렇게 말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먹는 날에 그들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였다. 이것이 바로 동적 일치 기법의 폐해이다.

### (3.3.2) 추가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 말씀에 자기의 말을 추가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시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최근에 이 같은 ‘동적 일치 기법’을 성경 번역에 도입한 장본인은 나이다(Eugene Nida, 1914-2011)이다. 그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미국성서공회, 연합성서공회 등을 위해 일해 왔으며 세상에 이 기법을 파급시킨 장본인이다. 그의 노력을 통해 1975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는 공식적으로 ‘동적 일치 기법’을 채택했고 그 뒤 1978년에 나온 NIV도 이 기법을 채택했다. 결론적으로 현대 역본을 위한 본문을 제공하는 연합 성서 공회(United Bible Society)는 이제 이 기법을 이용한 성경만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동적 일치 기법’을 이용하여 말씀을 변경하고 가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신12:32)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

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 (3.3.3) 추측

현대 역본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기법 중 하나는 추측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가 그들의 추측 번역 방법을 잘 보여 준다. KJV와 ‘전통 마소라 본문’은 창세기 4장 8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KJV)

그런데 NIV는 이렇게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로 가자...”(NIV)

히브리어 본문에는 NIV의 밑줄 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절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NIV 편집자 콜렌버거는 1979년에 발간된 「NIV Interlinear Hebrew-English」에다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각주를 달았다.

여기 있는 히브리 본문과 번역은 참고 문헌 1번에 있는 여러 가지 초기 번역들을 기초로 해서 추측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의 본문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신학이나 신념에 맞게 추측하여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고쳤고 그 결과 부패된 「BHS」의 경우 약 20,000군데가 수정되었다.

## 3.4 읽기 쉬운 성경

많은 광고들이 “KJV는 확실치 않으며 혼동을 일으키고 대개의 경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킴킴한 혼동의 구름을 만들어 낸다. 반면에 그들은 NIV의 ‘읽기 쉬운 현대 영어’를 극구 칭찬한다. 단순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 흑색선전용으로 제작된 전면 칼라 광고지들은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압하고 있다.

그러나 플래쉬-킹케이드(Flesch-Kincaid) 연구사의 영어 등급 수준 지표는 새 역본들의 참 색깔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 주며 이 문제의 흑과 백을 엄격하게 드러낸다. 26개를 비교해 본 결과 KJV는 이 중 23개에서 새 역본들보다 더 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등급 수준} = (0.39 \times \text{문장당 평균 단어 수}) + (11.8 \times \text{단어당 평균 음절 수}) - 15.59$$

물론 등급 수준이 낮을수록 문장이 쉽게 쓰인 것이다. 비교를 위해 먼저 친구약 성경의 첫째 책과 마지막 책의 첫 장들을 조사해 보았다. 이 경우에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등으로 끝나는 불완전한 문장들과 마침표로 끝나는 모든 구절을 문장으로 간주했다.

다음 표가 보여 주듯이 비교 결과 KJV가 다른 어떤 현대 역본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KJV의 등급인 5.8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KJV를 읽을 수 있음을 뜻하고 NIV의 8.4는 미국 학제의 8·9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야 NIV를 읽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읽힘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세 종류의 책들(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일반 서신서)에서 한 장씩을 뽑아 더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역시 KJV가 새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쉽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플레쉬-킹케이드 영어 등급 수준 지표 1〉

	KJV	NIV	NASB	TEV	NKJV
창세기 1장	4.4	5.1	4.7	5.1	5.2
말라기 1장	4.6	4.8	5.1	5.4	4.6
마태복음 1장	6.7	16.4	6.8	11.8	10.3
요한계시록 1장	7.5	7.1	7.7	6.2	7.7
등급 수준 평균	5.8	8.4	6.1	7.2	6.9

〈플레쉬-킹케이드 영어 등급 수준 지표 2〉

	KJV	NIV	NASB	GNMM (TEV)	NKJV
요1:1-21	3.6	3.6	4.2	5.9	3.9
갈1:1-21	8.6	9.8	10.4	6.7	8.9
약1:1-21	5.7	6.5	7.0	6.0	6.4

그렇다면 KJV가 다른 현대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KJV는 한 개나 두 개의 음절로 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새로운 역본들은 여러 개의 음절로 된 복잡한 단어들과 구절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역본들의 어휘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한 구원의 소망을 보통 사람들에게 숨겨 버린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며”(고후3:12)

단순하며 분명한 성경 구절에서 NASB는 낱빛의 검푸른 단어들을 사용하며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혼동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생색을 내는 듯한 어휘들을 사용한다. 이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정확성과 단순성’을 위해 KJV를 읽어야만 할 것이다. 새 역본을 추천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세뇌시켜 ‘거짓말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느 성경이 더 읽기 쉬운지 스스로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만 한다.

### 3.5 외우기 쉬운 성경

이번에는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단순한 구조의 성경 구절이 적당한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시119:11)

성령님의 칼인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한 문장 구조와 한 음절로 된 단어들은 성경 암송을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죄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 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그래서 새 역본들의 경우에는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한 공격용 칼이 매우 어려운 단어들의 칼집 안에 갇혀 있다. 대개 새 역본들은 무엇을 말하려 할 때마다 KJV보다 두 배나 많은 단어나 음절을 사용한다.

다음은 KJV와 NASB를 간략하게 비교한 것이다.

〈KJV와 NASB의 음절 수 비교〉

NASB		KJV
Question those who have heard what I spoke to them (10단어/11음절)	요18:21	Ask them which heard me. (5단어/5음절)
Do not be afraid any longer but go on speaking (10단어/11음절)	행18:9	Be not afraid but speak (5단어/6음절)
you do not have any fish, do you? (8단어/9음절)	요21:5	have ye any meat (4단어/5음절)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restore the one who sick (11단어/14음절)	약5:15	the prayer of faith shall save the sick (8단어/8음절)
flashes of lighting and sounds and peals of thunder (9단어/12음절)	계4:5	lightings, and thunderings, and voices (5단어/9음절)
angel who had seven plagues which are the last (9 단어/11 음절)	계15:1	angels having the seven last plagues (6단어/9음절)
총 58단어/68음절		총 33단어/42음절

이 표가 잘 보여 주듯이 NASB는 KJV에 비해 약 두 배나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역본들의 문장 구조를 ‘미로’(迷路)라고 부른다.

“NIV는 참 읽기 쉽다.”는 광고 역시 마귀의 계략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자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는 NIV의 복잡한 문장 구조 속에서는 어떤 단어를 외우거나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된다. 다음 표는 KJV와 NIV의 음절 수를 비교해서 보여 준다.

NIV의 경우 음절 수가 KJV의 3배나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본 부록에서는 지면이 부족하여 성경 전체를 비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NIV의 어휘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KJV와 NIV의 음절 수 비교〉

	NIV	KJV
출32:6; 고전10:7	indulge in revery (6)	rose up to play (4)
레14:2, 57	regulations for infectious skin diseases and mildew(15)	law of leprosy (5)
레11:30	skink (1)	snail (1)
고후2:2	conscripted (3)	told (1)
롬1:28	think it worthwhile (4)	like (1)
엡4:16	supporting ligament (6)	joint (1)
눅10:35	reimburse (3)	repay (2)
눅11:26	final condition (5)	last state (2)
총 음절 수	43	17

3.6 KJV 영어의 특징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전 세계적인 책으로 만드셨는데 사실 이 같은 계획은 21세기에 새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대영제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함에 따라 지난 400년간 KJV의 단어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져 나갔다.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 호주, 유럽, 캐나다, 러시아 등에 영국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영국의 권력 및 문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영문학을 배우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미국식 영어가 아니고 영국 본토의 런던 토박이 영어이다.

사전 찾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친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KJV 안에 있는 8,000여 단어들로 구성된 영어야말로 새 역본들의 영어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정확하며 직관적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3장 24절의 '가슴 옷'을 뜻하는 'stomacher'는 새 역본들이 번역한 대로 허리띠를 뜻하는 'belt'가 아니며 15-17 세기경의 여자들이 가슴에 입었던 옷이다. 새 역본들에 있는 좀 더 '단순한'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은 사실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거나 부패된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새 역본들은 다니엘서 3장 7절에서도 KJV의 매우 간단한 단어인 하프(harp)를 훨씬 더 어려운 단어인 '지더'(zither)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KJV를 향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어려움만 더해 준다.

보기에 친숙한 것 같지 않은 KJV의 단어들은 다음의 네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 좋은 영어 사전을 사용하라. 어떤 단어의 구체적인 정확한 뜻을 알려면 「Oxford Unabridged, The Glossary of the Cambridge Interleaved Bible」 혹은 1828년판 「The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Noah Webster」 등을 사용하라.
2. 성경에 포함된 사전을 사용하라. 특히 한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날 때 앞 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풀리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어를 처리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삼상9:1-11을 참고하라. 그분께서는 여전히 고어들을 그대로 두시되 성경에서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신다.
4. KJV에 있는 Thee나 Thou 등은 1611년의 영어가 아니고 성경 언어임을 기억하라. KJV가 번역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사용하던 이런 단수 단어들은 이미 당신을 뜻하는 You로 대체되어 있었다. Thee, Thou, Thy, Ye를 You나 Your로 바꾸면 단수 (thee, thou, thy)와 복수(ye) 사이의 중대한 영적 차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예를 들어 요3:7 등과 같은 구절).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You로 부를 수는 없기에 존칭의 의미를 갖는 Thou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 4. 킹제임스 성경 신학의 우수성

한마디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의 구원, 교회, 천국, 천사, 지옥, 마귀, 성경,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등에 대한 절대 무오한 진리 - 이것을 정리하여 체계화하면 신학이 됨 - 를 담고 있는 책으로서 오직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신자들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재는 척도이다. 따라서 이 척도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믿는 바가 달라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단들의 경우처럼 잘못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KJV 성경의 신학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보여 주려 하며, 특히 본문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신학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많은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내려 한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KJV와 현대 역본들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위해 영어 본문도 함께 기록했다.

##### 4.1 하나님론

KJV(요일5:7)	NIV 등 현대 역본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 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 이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라.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u>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u> : and these three are one.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성경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 주는 구절은 없다. 그런데 오직 KJV만이 이 구절을 지니고 있다. 여호와와 증인들이 KJV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4.2 그리스도론

KJV(갈3:17)	NIV 등 현대 역본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the covenant, that was confirmed before of God <u>in Christ</u> , the law, which was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The law, introduced 430 years later, does not set aside the covenant previously established by God...
KJV는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구약 시대의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나 NIV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	

KJV(요3:13)	NIV 등 현대 역본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And no man hath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u>which is in heaven</u> .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the Son of Man.
KJV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이나 계신 분임을 보여 주나 NIV 편집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밑줄 친 부분을 제거하였다.	

KJV(요일4:3)	NIV 등 현대 역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An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not that Jesus <u>Christ is come in the flesh</u> is not of God: and this is that spirit of antichrist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누가 이단인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NIV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4.2 그리스도론 계속

KJV(눅2:33)	NIV 등 현대 역본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것들로 인하여 놀라워하더라.
And Joseph and his mother marvelled at those things which were spoken of him.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만다.	

KJV(눅4:8)	NIV 등 현대 역본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Get thee behind me, Satan: for it is written, Thou shalt worship the Lord thy God, and him only shalt thou serve.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사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NIV 등은 이 같은 예수님의 권위를 축소하려 한다.	

KJV(요1:18)	NASB 등 현대 역본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설명하셨느니라.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No man has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God,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explained Him.
이것은 여호와와의 증인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다. NASB 등에 따르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열등한 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KJV는 예수님이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 4.2 그리스도론 계속

KJV(롬14:10-12)	NIV 등 현대 역본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u>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u> 서리라...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u>하나님께</u> 회계 보고를 하리라.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u>하나님의 심판석 앞에</u> 서게 되리라...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u>하나님께</u> 회계 보고를 하리라.
...for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u>judgment seat of Christ</u> ...So then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u>to God</u> .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u>God's judgment seat</u> ...So then,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u>to God</u> .
참으로 묘하지 않은가? KJV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을 명백하게 보여 주지만 NIV는 마음대로 본문을 고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 4.3 교회론

KJV(계2:15)	NIV 등 현대 역본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u>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u> .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So hast thou also them that hold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u>which thing I hate</u> .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여기 나오는 니콜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회중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고 구약 시대 제사장처럼 일반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계급주의 및 교권주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 4.4 성경론

KJV(삼하21:19)	NIV 등 현대 역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u>엘하난</u>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더니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u>엘하난</u> 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And there was again a battle in Gob with the Philistines, where <u>Elhanan</u> the son of Ja'are-oregim, a Bethlehemite, slew <u>the brother of Goliath</u> the Gittite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at Gob, <u>Elhanan</u>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u>Goliath</u> the Gittite
성경은 절대 무오한 책이다. 그런데 NIV, ASV, NASB 등은 다윗이 아니라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을 훼손한다.	

## 4.4 성경론 계속

KJV(막1:2-3)	NIV 등 현대 역본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된 바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As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thy face, which shall prepare thy way before thee.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이 구절은 말3:1과 사40:3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는 말씀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며 이를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KJV(막15:28)	NIV 등 현대 역본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삭 제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th,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삭 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었으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NIV 등은 이 같은 예언 성취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약화하고 있다.	

KJV(벧전2:2)	ASV 등 현대 역본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As newborn babes, desire <u>the sincere milk of the word</u> , that <u>ye may grow thereby</u> :	as newborn babes, long for <u>the spiritual milk</u> which is without guile, that <u>ye may grow thereby unto salvation</u> ;
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전한 젖은 무엇인가? KJV는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데 ASV는 이 사실을 숨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과정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4.5 구원론

KJV(요3:15)	NASB 등 현대 역본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o that whoever believes will in Him have eternal life.
NASB의 편집자들은 아무것이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KJV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KJV(계21:24)	NIV 등 현대 역본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곳으로 들어오리라.
And the nations of them which are saved shall walk in the light of it: and the kings of the earth do bring their glory and honour into it.	The nations will walk by its light, and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ring their splendor into it.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걷는 민족들은 구원받은 민족들뿐이다. 그런데 NIV 등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 걷는다고 기록함으로써 누구나 구원받는 것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4.6 속죄론

KJV(골1:14)	NIV 등 현대 역본
그분 안에서 우리가 <u>그분의 피를 통해</u>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u>through his blood</u> ,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KJV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음을 보여 주나 NIV는 이런 사실을 숨긴다. ‘현대인의 성경’, ‘리빙 바이블’ 등의 현대 역본들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여 ‘피 없는 성경’이 되고 말았다.	

## 4.6 속죄론 계속

KJV(약5:16)	NIV 등 현대 역본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Confess your <u>faults</u> one to another, and pray one for another	Therefore confess your <u>sins</u>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KJV는 성도들에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NIV는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친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바로 이런 구절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고해 성사를 지지하고 있다.	

## 4.7 종말론

KJV(마25:13)	NIV 등 현대 역본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u>사람의 아들이 오는</u>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함이니라.
Watch therefore, for ye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wherein <u>the Son of man cometh</u> .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그날과 그 시각을 수식해 주는 구절이 없으면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겠는가? NIV는 결코 쉽게 번역된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람들을 혼동으로 이끌고 갈 뿐이다.	

## 4.8 심판론

KJV(골3:6)	NIV 등 현대 역본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u>불순종의 자녀들에게</u> 닥치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For which things'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u>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u> :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에게나 닥치지 않고 오직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닥친다. 또 한 번 KJV는 현대 역본보다 훨씬 정확하다.	

4.9 부활론

KJV(막12:23)	NIV 등 현대 역본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 일곱 사람이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u>when they shall rise</u> , whose wife shall she be of them? for the seven had her to wife.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married to her?
NIV는 부활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한다.	

4.10 지옥론

KJV(막9:44, 46)	NIV 등 현대 역본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삭 제
Where their worm dieth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삭 제
NIV 편집자들은 무척이나 지옥을 두려워하므로 지옥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이곳 외에도 신구약 성경에서 지옥을 지칭하는 곳의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음부, 스올 등으로 대체하였다.	

4.11 천국론

KJV(히10:34)	NIV 등 현대 역본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u>그들을 불쌍히 여기</u> 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긴 것은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앎이라.
For <u>ye had compassion of me</u> in my bonds, and took joyfully the spoiling of your goods, knowing in yourselves that ye have <u>in heaven</u> a better and an enduring substance.	<u>You sympathized with those</u> in prison and joyfully accepted the confiscation of your property, because you knew that you yourselves had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
NIV 편집자들은 ‘하늘에’를 삭제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워 버리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구한 소유를 얻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복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인간의 기준에서 이것은 참으로 영구한 실체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에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	



## 진리에 대한 오해와 역사의 진실

###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

1611년에 탄생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심하게 흔들려는 비평가들의 최후 배수진 가운데 하나는 소위 개정(改正)이라는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 곧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사본학적 증거와 성령님께서 이루신 명백한 증거들을 내보이며 자기들의 빈약한 주장을 뒤엎어 버리자 궁극적인 패배를 맛보지 않으려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 요새로 도피한다. 일단 이 요새에 들어서면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에 대해 자신만만해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여러분은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십니까? 1611년판입니까, 1629년판입니까? 아니면 1769년판입니까?”

이 같은 공격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잠시 어리둥절해하면 그들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재빨리 도망쳐 버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기들의 성안에 들어가 성문을 걸어 닫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요새가 리건(David F. Reagan)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이미 조직적으로 파괴되어 완전히 허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리건 박사는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에 있는 트리니티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The Myth of Early Revisions*)라는 책을 저술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수정판에 얽힌 신화 즉 꾸며 낸 이야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폭로했다. 다시 말해 리건 박사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하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 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가 발견한 것을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므로 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소책자 전편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초기 개정 신화

마귀가 처음 이브에게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고후4:2)을 가르쳐 준 이래로 사람들은 줄곧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가인으로부터 발람에 이르기까지, 여후디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이르기까지, 중세 암흑시대 신학자들로부터 오늘날의 인본주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부패한 손이 노리는 제1의 표적물이 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은 대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첨가와 삭제 그리고 바꿔치기가 바로 그것들이다. 아담 시대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전략은 변치 않고 동일하며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최근 들어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마귀의 공략 방법 중 하나는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곧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그 공격의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네 차례나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개정 성경들에 대한 반대론은 타당치 않으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신화 즉 꾸며 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신화는 1881년에 나온 ‘영국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이미 사용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들의 최신 번역판 성경을 팔려는 근본주의 학자들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 부활되었다. 이 소책자는 이러한 공격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본 자료의 목적은 성경 보존을 부인하는 자들을 깨우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이들의 집요한 공격에 답변할 때 늘 문제점이 하나 생긴다.

“과연 비평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대답해야만 하는가?”

만약 영어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천박한 질문들에 일일이 답하고자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느 곳에서나 공정성(公正性)이 득세하기 마련이며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다. 잠언 26장 4-5절은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라.”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그것을 무시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에 답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공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당신을 상대방과 동일하게 미련한 존재로 만든다면 그런 질문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최상의 답이 될 것이다. 가령,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는 특정 인물이 이혼했으므로 성경은 무오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누가 해 온다면 이 경우에 여러분은 침묵이 최상의 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실 여부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문제나 질문이 제기될 경우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성경 공격자는 자기기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우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매우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나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여부를 다루는 문제가 두 번째 종류의 문제라고 믿는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네 차례의 중대한 개정 작업을 거친 것이 사실이라면 기존 영어 본문에 기초해서 진전되고 있는 성경 개정 작업에 반대하는 것은 실로 그릇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독자께서는 이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 1. 1611년 당시의 인쇄술

만일 하나님께서 주후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영어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다면(사실이 그렇다), 우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번역자들의 필기 자료일까? 혹은 인쇄공들에게 보낸 교정쇄일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이러한 종이 몽치들은 이미 소실되고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권위도 근거를 잃고 만다.

어떤 분은 인쇄기에서 맨 처음 찍혀 나온 책에 권위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책 또한 분명히 지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당시의 인쇄 작업 방식에 따라 인쇄되었더라면 맨 처음에 인쇄된 책은 인쇄 상태가 좋지 못했음에





16세기경의 인쇄소

틀림이 없으므로 폐기 처분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쇄할 때 만들어진 책들 중에서 남은 것들뿐이며, 사실 이렇게 남아 있는 책들은 다른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는 표준으로서 종종 지목되곤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이 책들이 표준이 될 수 있을까? 초판을 찍어 냈던 초기의 인쇄공들이 인쇄 실수를 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단 말인가?

이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보존된 영어 성경 본문’에 대한 권위는 사람이 만든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다. 인쇄공들의 실수로 틀린 데나 고친 데가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본문이 망쳐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늘 틀리고 실수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성경 본문을 보존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1611년 당시 인쇄공들의 고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하기 161년 전인 1450년경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는 했지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할 때 인쇄공들이 사용하던 장비는 인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 비해 거의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인쇄는 여전히 느리고 어려웠다. 모든 활자를 한 번에 한 글자씩 손으로 조판하였으니 -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한 글자씩 조판했음 - 어떤 책에도 인쇄공에 의한 실수들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 초판을 인쇄했던 인쇄공들은 참조할 수 있는 이전 판조차 없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는 여러 가지 인쇄상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실수들은 결코 현대 성경 역본 편집자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본문 교체와 같은 것이 아니며 다만 단순한 인쇄상의 실수들로서 심지어 현대화된 인쇄기의 이점을 모두 살려 만든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에서조차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쇄상의 실수였다. 비록 이런 실수들이 성경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기 판에서는 이런 것들이 마땅히 정정(訂定)되어야 했다.

현존하는 두 개의 ‘킹제임스 성경’ 원본은 1611년 당시에 인쇄상의 실수 없이 성경을

인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 두 판본은 옥스퍼드에서 인쇄되었고 둘 다 같은 해인 1611년에 인쇄되었다. 즉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같은 해에 두 번 출판되었다. 동일한 인쇄공들이 일을 했고 동일한 인쇄기로 인쇄를 했다. 그러나 이 두 판본을 엄밀히 비교해 보면 본문들 간에 100여 개의 인쇄상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온 지난 400여 년 동안 소위 네 번의 개정 작업이 있었다고 억지 주장을 펴며 그 결과 본문상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는 약 400여 군데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별별 억측을 다 한다. 분명히 이런 학자들의 정신세계는 무엇인가가 심히 부패해 있다! 자, 이제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 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 보자.

## 2. 1611년판 KJV가 네 차례 개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여기서 언급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유명한 성경학자 스크리브너(F. H. A. Scrivener)가 「권위역 영어 성경(1611), 그 이후의 재판(再版)과 현대판들」(*The 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1611), Its Subsequent Reprints and Modern Representative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은 제목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단단히 학자타를 내는 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1884년에 이 책을 출판한 스크리브너가 1881년도 ‘영어개역성경’을 만든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그는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의 책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 개정’을 다루고 있는 스크리브너의 책 첫 부분의 상세한 기록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소위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두 번이나 대거 개정되었다는 것은 원판이 인쇄되고 난 뒤 27년 안에 일어났다. 이 문제를 대하면서 먼저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영어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케임브리지에서 인쇄된 1629년판 ‘킹제임스 성경’이 첫 번째 개정판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개정’(revision)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껏 고친 ‘교정’(correction)이었다. 1629년판은 ‘킹제임스 성경’ 원판이 번역된 지 18년 뒤에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맡았던 워드 박사(Dr. Samuel Ward)와 보이스 박사(Dr. John Bois) 두 사람이 그 판의 인쇄에 직접 참여했다. 원래 번역을 맡았던 이 두 사람보다 더 초기의 실수들을 잘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뒤에 다시 케임브리지에서 소위 ‘두 번째 개정’이라 불리는 또 다른 판이 나왔다. 그때까지 워드와 보이스 박사 모두 살아 있었지만 이때 그들이 그 일에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1881년의 ‘영어개역성경’ 편집에 직접 참여했던 스크리브너조차 케임브리지 인쇄공들이 한 것은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었을 때 인쇄공들의 실수로 빠진 단어나 절을 원래대로 하고 명백한 인쇄상의 실수들을 교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시인하였다는 점이다.

뒤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그 연구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약 400여 군데 교정된 것 중 72%가 원판이 인쇄된 지 27년 만인 1638년의 케임브리지판에서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소위 ‘처음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화하기 위한 ‘두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다. 그리고 소위 ‘마지막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도 철자의 표준화에 필요한 ‘두 단계로 구성된 또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다. 이 두 단계 교정 공정의 판들 중 처음 판은 1762년에 시작되어 7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고 둘째 판은 1769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인본주의 학자들이 교정판에 번호를 매길 때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공정에서는 본문 교정이 거의 필요치 않았다. 소위 ‘수천 개의 변화’(changes)라 불리는 것들은 이미 확립된 정확한 본문에다 철자가 변함에 따른 형태 맞추기 작업에 불과했다. 즉 철자상의 변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철자상의 변화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는 주장이 한낱 기만행위요, 머릿속에서 지어낸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많은 적든 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런 변화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3.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 인쇄 원본을 보여 주기 위해 여러분을 박물관으로 데리고 갔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여러분은 성경이 전시된 유리 상자로 가서 유리를 통해 펼쳐져 있는 성경을 들여다볼 것이다. 비록 책장을 넘겨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성경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안의 단어들을 거의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낱말들조차도 아주 이상하게 쓰여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이전의 관람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1611년 원판이 인쇄된 이래로 ‘킹제임스 성경’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 여러분은 지금 단지 매우 교활한 책략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차이들은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다. 이제 그 증거를 조사해 보도록 하자.

#### ● 인쇄상의 변화들

엄밀한 검토를 위해 우리는 변화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인쇄상의 변화들’, ‘철자상의 변화들’, ‘본문상의 변화들’.

먼저 ‘인쇄상의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활자체는 고딕체였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의 활자체는 아마도 로마체나 타임즈 로마체일 것이다(다음 쪽의 고딕체와 로마체 비교 참조). 고딕체는 그것이 독일에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때때로 독일체라고도 불린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쇄기가 발명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고딕체는 중세기에 손으로 작성한 필사본의 글씨체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로마체는 꽤 일찍 발명되기는 했지만 유럽 전역에 걸쳐 가장 유력한 인쇄체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다. 고딕체는 최근까지도 독일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다. 1611년 당시 영국에서는 로마체가 이미 대중화되었고 곧 고딕체를 앞지를 전망이다. 그렇지만 원판 인쇄공들은 고딕체가 로마체보다 더 아름답고 표현 능력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딕체를 선택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로마체로 바꾸어야 했고 마침내 1612년에 ‘로마체를 사용한 첫 번째 킹제임스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다. 그로부터 몇 년 내에 인쇄된 성경들에는 모두 로마체가 사용되었다. 활자체의 변화는 글씨의 형태나 크기를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성경의 본문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그렇지만 고딕체에 친숙하지

〈고딕체와 로마체 비교: 요한복음 3장 16절〉

고 딕 체	로 마 체
<p><i>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i></p>	<p>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p>

못한 현대 독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형태상의 몇 가지 일반적인 변화 외에도 몇 개의 특별한 글자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딕체 s는 대문자로 사용되거나 혹은 단어의 끝에 사용될 때 마치 로마체의 s처럼 보여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나 단어의 중간에서 소문자 s로 쓰일 때는 마치 f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also는 alfo가 되고, set는 fet가 된다. 또 다른 변화는 독일체 v와 u에서 발견된다. 고딕체 u가 로마체 v처럼 보이지만 고딕체 v는 로마체 u처럼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왜 w를 ‘더블비어’라 하지 않고 ‘더블유’라고 부르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익숙해지면 괜찮다. 따라서 1611년판을 보면 love는 louero, us는 vs로, 그리고 ever는 euer로 쓰여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철자상의 변화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활자체의 변화일 뿐이다.

또 다른 예로, 고딕체 j는 i처럼 보인다. 그래서 Jesus(예수)는 Iefus(중간의 s가 f로 변했음에 유의하라)가 되고, joy는 ioy가 된다. 심지어 고딕체 d의 굽은 중선이 뒤에서 원으로 굴러지면 그리스어 델타(δ)와 비슷하게 된다. 이런 철자상의 변화들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이 안고 있는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본문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것들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 두려고 사용하는 연막 장치에 불과하다.

● 철자상의 변화들

‘킹제임스 성경’ 역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종류의 변화는 정서법(orthography) 또는 철자상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역사 학자들은 현대 영어가 15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1611년경에는 현대 영어의 기본 단어들과 문법적 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철자는 그 당시까지도 확립되지 않았다. 사실 1600년대의 철자는 매우 변덕스러웠다. 정확한 철자 같은 것은 아직 없었고 잘 확립된 어떤 철자 규정 같은 것도 없었다. 어떤 작가들은 종종 동일한 책에서, 때로는 동일한 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1600년대가 철자 표기의 천국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단어들의 철자가 정해진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18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철자도 표준화되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1611년의 인쇄본 사이에 어떤 종류의 철자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철자의 차이점을 목록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몇 가지 특징은 상당한 공통성을 띠고 있다. 부가적으로 들어간 e들은 종종 feare, darke 그리고 beare같이 단어들의 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중 모음은 오늘날보다도 더 일반적이었다. 여러분은 me, be 그리고 moved 대신에 mee, bee 그리고 mooued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자음은 더욱 흔한 것이었다. ranne, euill 그리고 ftarres는 오늘날의 철자법에 따르면 어떤 단어가 될까?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지 시도해 보기 바란다. 그것들은 오늘날 철자법에 따르자면, ran, evil 그리고 stars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쇄상 및 철자상의 변화들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어떤 식으로든 결코 본문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현시대에 천주교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들에서 공공연하게 만들어 지거나 발견되는 진정한 본문 변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다.

### ● 본문상의 변화들

'킹제임스 성경'도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정의 예로 제시하는 대부분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충분히 해명했다. 이제부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과 현재 발간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본문 사이에 실제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물론 이 두 개의 본문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개정에 의한 변화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대개 초기의 인쇄 실수들을 정정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세 가지로 입증해 보일 수 있다: (1) 변화들의 특성, (2) 성경 전체를 통한 변화들의 빈도, (3) 이런 변화들이 생긴 시기.

먼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던 때부터 발생한 변화들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1611년판 본문으로부터의 변화들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은 이런 변화들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인쇄상의 실수였다. 그것들은 절대로 성경 말씀의 해석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본문의 변화가 아니다. 처음 인쇄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은 때때로 뒤집어졌다. 때때로 복수가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단수가 복수로 쓰이기도 했다. 때로는 어떤 단어 대신에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가 대신 들어가 잘못 쓰이기도 했다. 드물게는 한 단어 혹은 심지어 한 절이 삭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생략된 것들은 너무나 명백했으며 현대 번역판 성경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리적 차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진실로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과 오늘날의 많은 인본주의 학자들이 정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스크리브너는 자신의 책 부록에서 '1611년 KJV 판'과 '후기 인쇄본들' 간의 변형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나는 다음의 표에 이렇게 정정된 것들의 예를 실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예들은 스크리브너 저서의 왼쪽 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정정 사항을 연속적으로 취한 것이다. 먼저 '1611년 원본'의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본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처음 정정된 연도가 기록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은 지난 375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생긴 변화들 중 5%를 보았다. 확인해 보면 금방 판단하겠지만 이것들은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alterations)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사실상 인쇄상 실수들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대판 성경들의 본문 변경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독자 스스로 다음 표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그러면 심각한 교리적 차이를 지닌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스크리브너의 부록 전체를 살펴볼 때 그것이야말로 그가 교리의 변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변경 사항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Seek God)이라고 해야 할 곳에서 '선(善)을 찾는'(Seek good)이

라고 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시편 69편 32절을 말하고 있다(표의 10번). 그러나 이것조차도 정말로 인쇄상의 실수였음을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첫째로, good과 God의 철자가 유사하다는 점은 피곤한 식자공이 교정쇄를 잘못 읽어 본문에 틀린 단어를 넣을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둘째로 이 실수는 너무도 명백해서 원판이 인쇄된 지 6년 뒤 즉 소위 ‘첫 번째 개정’이라 불리는 것이 나오기도 전인 1617년에 이미 제대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여러 차례의 주요한 개정 작업이 있었다는 신화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더 설명할 것이 남아 있다. 변화들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인쇄상의 실수들이었음을 보여 주며 또한 변화의 빈도 역시 이 사실을 입증한다. 인본주의 학자들은 1611년판에 만들어진 수천 개의 개정 사항이 마치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수천 개의 개정 사항과 동등한 것인 양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수천 개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활자체나 철자상의 변화였다. 그 밖의 것들은 분명히 지루했던 초기의 인쇄 공정에 따라 생긴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들이었다.

〈1611년판과 현재 출간되는 KJV 비교〉

번호	1611년 원본 본문	현재 본문	년도
1	this thing	this thing also	1638
2	shalt have remained	ye shall have remained	1762
3	Achzib, nor Helbath, nor Aphik	of Achzib, nor of Helbath, nor of Aphik	1762
4	requite good	requite me good	1629
5	this book of the Covenant	the book of this covenant	1629
6	chief rulers	chief ruler	1629
7	And Parbar	At Parbar	1638
8	For this cause	And for this cause	1638
9	For the King had appointed	for so the king had appointed	1629
10	Seek good	seek God	1617
11	The cormorant	But the cormorant	1629
12	returned	turned	1769
13	a fiery furnace	a burning fiery furnace	1638
14	The crowned	Thy crowned	1629
15	thy right doeth	thy right hand doeth	1613
16	the wayes side	the way side	1743
17	which was a Jew	which was a Jewess	1629
18	the city	the city of the Damascenes	1629
19	now and ever	both now and ever	1638
20	which was of our father's	which was our fathers	1616

위에 제시된 목록의 표본은 스크리브너가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변형들을 목록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렇게 꼼꼼한 학자가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대 ‘킹제임스 성경’ 간에는 단지 400여 개의 차이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라며 또한 이런 차이마저도 인쇄상의 실수라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1611년에 인쇄된 두 개의 옥스퍼드판 사이에도 인쇄상의 실수로 100여 개의 차이가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성경이 대략 1,200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1611년판과 현재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판을 비교하면 1장당 평균 변형은 0.33개이고 이는 3장당 1개꼴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것들은 ‘chief rulers’를 ‘chief ruler’로 ‘And Parbar’를 ‘At Parbar’로 고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인쇄 실수들이었다.

이러한 변형들이 단순히 인쇄상의 실수들을 고친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 더 남아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것들이 인쇄한 뒤 매우 빠른 시기에 모두 정정되었다는 점이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상의 특성과 빈도는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과는 명백히 다르다. 이런 변화들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시기 자체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 400여 개의 정정 사항 중 대다수는 원판이 인쇄되고 난 뒤 몇 년 내에 이루어졌다. 그 예로 위의 수정 사항 목록을 다시 한 번 보기 바란다. 20개의 정정 사항 중 1개는 1613년에, 1개는 1616년에, 또 1617년에, 8개는 1629년에, 5개는 1638년에, 1개는 1743년에, 2개는 1762년에, 1개는 1769년에 정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20개 정정 사항 중 16개 즉 80%가 1611년 초판이 인쇄된 뒤 27년 이내에 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개정 작업’이란 것은 결코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스크리브너 책 부록의 다른 페이지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킹제임스 성경’ 본문 정정 사항의 72%가 1638년경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 개정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는 명백히 인쇄상의 실수에 대한 것밖에 없다. 본문 변화의 빈도는 세 페이지당 한 번꼴로 드문드문 일어났고 본문의 인쇄상 실수들의 75%가 처음 인쇄된 지 27년 이내에 정정되었다. 이런 모든 세부 사항은 지난 400년간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상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언어를 현대화한다는 의미의 진정한 개정 작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개정판이 있었다면, 초기 식자 공정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준 판본이 있을 뿐이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 -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 에 대한 권위는 결코 현존하는 초판 원본에 있지 않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에 대한 권위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있다. 우리가 자필 원본이라는 것에 대해 입씨름하며 서로 다투게 될까 봐 자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역본 성경의 교정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셨다. 우리의 권위는, 항상 그러하였듯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은 결코 현대 역본 성경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하여 근본주의 집단 내에 맴돌고 있는 그릇된 주장 즉 학자들이 부풀려 놓은 거짓 신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 신화는 다름이 아니라 ‘뉴킹제임스 역본’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역본들이 1611년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진 ‘킹제임스 성경’ 개정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개정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은 곧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본문상의 개정이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네 차례의 주요 개정 작업을 거쳐 본문이 바뀐 적이 없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것’이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있지도 않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는 그분의 완전한 말씀이 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동사 어미 변화 용례

### NOTE ON OLD VERB ENDINGS

#### (A) 동사의 *-eth* 어미와 *-th* 어미 처리

##### To Understand *-eth* & *-th* Verb Endings

(1) 동사의 *-eth* 어미는 대부분 *s*로 바꾸면 현대 영어와 같게 된다(Change most *-eth* verb endings to *s*).

err-**eth** *is* errs; esteem-**eth** *is* esteems; exact-**eth** *is* exacts; fight-**eth** *is* fights; sit-**teth** *is* sits;

(2) *ss, sh, th, x, ch, o, & i* 등과 같은 글자 뒤의 *-eth* 어미는 *es*로 바꾸면 현대 영어와 같게 된다(After certain letters such as *ss, sh, th, x, ch, o, & i* change the *-eth* to *es*).

witness-**eth** *is* witnesses; refresh-**eth** *is* refreshes; stablish-**eth** *is* stablishes; rush-**eth** *is* rushes; thresh-**eth** *is* threshes; vanish-**eth** *is* vanishes preach-**eth** *is* preaches; reach-**eth** *is* reaches; reproach-**eth** *is* reproaches; search-**eth** *is* searches; satisfi-**eth** *is* satisfies; signifi-**eth** *is* signifies;

(3) 동사의 *-th* 어미는 *s*로 바꾸면 현대 영어와 같게 된다(Change each *-th* verb ending to an *s*).

curse-**th** *is* curses; deceive-**th** *is* deceives; declare-**th** *is* declares; decline-**th** *is* declines; defile-**th** *is* defiles;

#### (B) 동사의 *-est* 어미와 *-st* 어미 처리

##### To Understand *-est* & *-st* Verb Endings

(1) 동사의 *-est* 어미는 생략하면 현대 영어와 같게 된다(Drop every *-est* verb ending together with any double consonant that precedes it to form the modern equivalent).

lay-**est** *is* lay; lead-**est** *is* lead; left-**est** *is* left; set-**test** *is* set; sin-**nest** *is* sin; sit-**test** *is* sit; swim-**mest** *is* swim;

(2) 동사의 *-st* 어미는 생략하면 현대 영어와 같게 된다(Drop every *-st* verb ending to form the modern equivalent).

change-**st** *is* change; charge-**st** *is* charge;



##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정의

요즘 미국 등에서는 ‘킹제임스 성경만 성경이다’라는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이즘’(King James Onlyism)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숭배하려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대적들이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레 ‘킹제임스 온리’라는 라벨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킹제임스 유일주의’ 정도로 부를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출간/배포하고 킹제임스 성경만을 읽고 그것만 사용하여 강해/설교하므로 자연히 ‘킹제임스 온리’라는 라벨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온리’에 대한 바른 정의 없이 ‘킹제임스 온리’라는 라벨이 붙으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오늘은 저와 또 함께 믿음의 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견지하는 ‘킹제임스 온리’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sup>1)</sup>

이런 정의는 사실 오래전에 네팔의 선교사로 있는 데이비드 클라우드 형제님이 내린 적이 있는데 저 역시 그 형제님과 비슷하게 제가 믿는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sup>2)</sup>

저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킹제임스 온리’가 정의된다면 그러한 라벨이 저에게 붙는 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 좋은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

1.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입으로 붙어 내신(영감 과정) 완전한 말씀들(단어들)을 히브리어/그리스어로 주셨고 모든 시대를 통해 섭리로 이 말씀들(단어들)을 보존해 주셨다.
2.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존하신 단어들(원어들)을 한 점의 오류 없이 수용 언어인 영어를 통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담아 주셨다.
3. 그러므로 모든 원어의 뜻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된 것만이 참되고 바르다. 이 말은 원어 단어마다 여러 뜻이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반영된 뜻만이 하나님 의도하신 바른 뜻이라는 의미이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현시대의 본문 비평은 마귀의 이단 교리이다. 현대 본문 비평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지 않았고 성경 본문 비평학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발견되어 성경에 추가,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하나님의 참된 본문은 천주교 도서관, 수도원, 동굴 등에 비밀리에 숨겨지지 않았고 시대를 거치며 신실한 성도들의 손으로 필사되어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전달되었다.

1)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킹제임스 온리) 정의: 클라우드 등  
<https://keepbible.com/KJB2/View/5gS>  
 2) <http://www.wayoflife.org/database/kjo.html>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의미로 ‘킹제임스 온리’를 주장한다면 저는 그러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 나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

1.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을 받았다. ---- 아니다. 오직 영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원어에만 해당된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들을 정확하게 번역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1611년의 영어 번역본에 다시 한번 영감, 즉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다.
2.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의 모체가 된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본문보다 우수하다. ---- 이 말은 그 자체가 난센스이다. 이것은 1611년 전에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 없었고,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그리스어 본문의 향상된 계시이다. ----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로 원어를 고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난센스이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sup>3)</sup>
4.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있으면 원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번역 등에 필요한 원어 도구들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 이런 주장은 성경 번역/해석 등에 영한사전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며 결국 자기만 옳다는 자가당착으로 귀결된다.
5.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보존되었다. ---- 아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이 우리말로도 보존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해석자의 지도를 받아야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극단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6. 오직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개역성경 등의 현대 역본은 사탄의 성경이다. ---- 우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롬1:16) 개역/개정/NIV 등의 현대 역본에도 복음이 보존되어 있다고 믿는다.
7.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로 정죄받거나 저주받아도 할 말이 없다. ---- 우리는 개역/개정/NIV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믿는다. 다만 그들은 완전한 말씀 전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통에 매인 채 바른 말씀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설득하여 성경 말씀의 완전성과 보존의 실재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 대상이다.<sup>4)</sup>

3)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 <https://keepbible.com/KJB6/View/2Zi?page=17>

4) 나는 국내 대형 교단들에 의해 이단 판정을 받은 말씀보존학회와는 일면식도 없다. 특별히 내가 위에서 ‘나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라고 규정한 것들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나는 단 한 차례도 동의한 적이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킹제임스 온리를 주장하는 대다수 학자들과 목사들은 ‘나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를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반대한다. 그런 주장은 비상식적이며 이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을 전해 주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준 개역성경을 사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를 벗어난 어리석은 난센스이다.



##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성경대로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영감을 믿을 것입니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문자들을 써서 단어들로 기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리스어로 영감(inspiration)은 ‘숨을 불어 내어 쉬다’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내어 쉬셨음’을 뜻합니다. 영어 ‘inspiration’에서 중간에 있는 ‘spir’는 영을 뜻하는 ‘spirit’에서 나왔습니다. 또 앞의 ‘in’은 들어갔다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영이(숨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에 숨을(혹은 영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그분은 ‘모든 성경기록’에 그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성경기록의 모든 단어에 자신의 숨을 불어 내십시오 그 단어들이 살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이것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단어)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별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4:12-13).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단어]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감 과정이 과거에 몇 차례 있었느냐, 또 지금도 있는느냐는 것입니다.

영감이 과거에 한 차례만 있었을까요? 여러 차례 있었을까요?

즉, 원본의 단어들만 단 한 차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사본의 단어들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혹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어떤가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이 영감 과정이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현재에도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여러 사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딤후3:16에 나오는 영감이 자필 원본의 단어들을 기록할 때에 사용된 영감이라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히브리어(약간의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나왔습니다. 그 단어들을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후1:20-21).

분명히 처음에 원본 성경기록들이 주어질 때 영어나 우리말로 단어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 다.

단 한 차례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하게 보존되면 그 성경은 사본이든 역본이든 자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숨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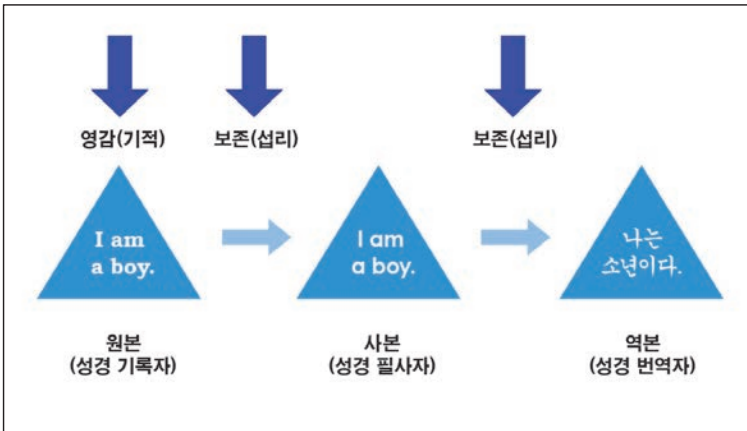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않거나 잘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어와 한국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영어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나와서 인간 기록자가 완벽하게 기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필 원본: I am a boy.

자, 시간이 지나면서 ‘I am a boy.’가 담긴 자필 원본이 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본: I am a boy(필사자와 필체는 다르지만 네 단어는 정확하게 같음).

자필 원본의 ‘I am a boy.’는 딤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필 원본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 놓은 사본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존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둘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원본과 사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숨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피땀 흘려 가며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처음의 원본과 동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1960년, 밀러(H. 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는데 이 이름을 쓰기 위해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뒤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고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폐기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한 뒤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임을 믿었으므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 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고,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이 비록 자필 원본의 말씀이 아니고 필사본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록된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사본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필사본 두루마리가 곧 원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every word)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분명히 위 구절 안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it is written)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의 자필 원본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사본)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원본만 옳았다면 'it was written'으로 과거 시제로 기록되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의 현재형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뜻하는 현재형입니다.

또한 '모든 말씀'(every word)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말씀이(단어가) 보존되지 않은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손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 성경이 자필 원본과 똑같음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마5:17-18; 눅24:27; 눅24:44 등).

자, 그러면 번역본은 어떨까요? 자필 원본을 그대로 동일하게 베껴 쓴 사본의 'I am a boy.'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번역본: 나는 소년입니다(참고로 우리말은 존칭이 있으므로 '나는 소년이다', '저는 소년입니다'도 다 맞는 번역임).

하나님의 입에서는 분명히 처음에 'I am a boy.'가 나왔고 인간 기록자는 그것을 원본에 기록하였으며 이 네 단어는 사본에 그대로 정확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 보존된 사본에서 정확하게 '나는 소년입니다.'라는 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역본도 최초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까요? 물론입니다. 정확하게 번역된 역본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100%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본의 단어들 역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성경이 완성된 뒤로 실제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다 역본이었습니다. 즉 AD 100년 이후에는 원본이나 사본의 시대가 아니라 역본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역본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역본)에 하나님의 숨이 없다면 그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번역 성경의 단어들에 딤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감은 단 한 차례 자필 원본이 기록될 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이 정확하게 필사되었고 그 필사본에서 지금의 역본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지금의 역본에도 하나님의 모든 단어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원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 봅시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단어는 원본을 정확하게 보존한 사본의 원어들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이러한 사본에는 성경기록 필사본, 성경기록을 담고 있는 성구집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사본의 모든 단어를 가능하면 1 대 1 대응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심지어 원어의 문장의 구조까지도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당연히 언어의 차이로 인해 무언가를 첨가해야만 합니다. 번역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다시 댄후3:16을 보도록 합시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is가 이탤릭체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자들이 번역을 위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is가 없어도 말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is가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자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자들은 정직하게 이것을 이탤릭체로 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은 원래 원본에 없었으나 번역을 위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두 개의 is를 제외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사본)을 있는 그대로 영어의 구조 안에서 가능한 한 1 대 1 대응이 되도록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식적 일치’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었기에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완벽한 형식적 일치를 보이는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11년 이래로 이 성경에 복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교회와 신학교의 교리, 신앙신조 등을 정리하며 5대양 6대주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수백 개 나라 성경의 번역 대본으로, 표준 잣대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너무 과장한 나머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에서 향상된 계시’ 혹은 ‘원본보다 더 좋은 계시’ 혹은 ‘영감을 받은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본보다 더 좋은 역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을 형식적 일치를 통해 정확하게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나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원본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부를까요? 다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향상된 계시’의 한 예로 행12:4를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행12:4).



And when he had apprehended him, he put *him* in prison, and delivered *him* to four quaternions of soldiers to keep him; intending after Easter to bring him forth to the people.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여기의 ‘이스터’를 유월절로 번역하였습니다. 루터 성경같이 바른 본문에서 나온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 성경 중에 유일하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이것을 ‘이스터’라고 바르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므로 이 성경은 원본을 뛰어넘으며 그래서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거나 영어 성경의 단어들도 딤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이중 영감설’을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러크만 (Peter Ruckman)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이거나 이중 영감을 받으려면, 원본에 없던 무엇인가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스터’라고 번역한 그리스어가 원어에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영어 성경이 그것을 번역해서 집어넣었다면 그것은 첨가이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파스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파스카는 명절의 경우 크게 둘을 뜻합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터’(이교도들의 부활절 축제)입니다. 파스카는 Oxford English Dictionary에도 정확하게 이 두 개의 명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파스카는 이 둘 중 하나로 번역될 수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행12장의 때가 이미 무교절 기간이라 유월절은 지났으므로 무교절 다음에 오는 이교도들의 부활절인 ‘이스터’로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어 없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계시’나 딤후3:16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100% 보존된 바른 사본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처음에 원본이 주어졌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중 원어들을 담은 사본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나 이중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선포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흥정역: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전1:14).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한다.”(vexation of spirit)고 전도서에서 무려 10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NIV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역본은 이것을 전적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과 ‘바람을 잡는 것’(grasping of the wind)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 혹은 ‘바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경우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성경의 대본이 된 원어 성경의 원어가 동일하므로 이 같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원어를 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자가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문맥상 어느 번역이 맞을까요? 우리는 전도서 기사가 말하려는 요점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기사는 마무리를 하면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지 결코 끈구름 잡는 것같이 바람을 붙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번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번역이라고 믿으며 이런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임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했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보다 낫다는 주장을 펴서는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단어들을 이방인들의 공통 언어로 보존한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의 글을 읽고 진술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편 진영에서 무식하다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본이 최종 권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에 우리가 원본의 모든 단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들이 바르게 번역되지 않으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스카’, ‘루아흐’, ‘하데스’ 등의 원어들은 다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번역되지 않으면 원어들만으로는 최종적인 표준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providence)라는 돌보심을 통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셔서 각각의 원어 단어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게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본의 모든 단어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번역되어야만 맞다고 믿습니다.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를 택하셔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역본들의 역자들은 원본의 원어들의 뜻을 이 세상 문학가나 철학자의 글을 통해 전달하려고 합니다. 원어 사전들의 저자들 가운데는 불신자가 많으며, 심지어 췌이어(J. H. Thayer) 같은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성경의 언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의 번역본 시대에 하나님의 원어 단어들을 100% 정확하게 옮긴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1 대 1 대응이 되게 형식적 일치를 유지하면서 정직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교리와 특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당연히 주장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딤후3:17의 진리가 흠정역 성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 3:17).

한편 ‘I am a boy.’를 ‘나는 소년입니다.’로 하지 않고 ‘나는 아이입니다.’로 하면 반만 맞습니다. 아이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 대 1 대응을 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나는 한 소년입니다.’로 하면 우스운 번역이 됩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도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창1:1)라는 말씀을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하고는 이외의 다른 번역은 다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만용입니다.

‘In the beginning’은 관용구로서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 처음(시작) 안에서’로 번역하는 것은 영어와 우리말을 망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머릿속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이므로 그 안에 있는 정관사, 부정 관사를 번역할 때 수용 언어(한국어)의 용례를 무시하고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계시’가 아니며, 이중 영감을 받은 성경도 아닙니다. 원본의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형식적 일치를 취하면서 정확하게 번역하여 그대로 보존한 성경,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처음에 원본이 주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100% 그대로 살아 있는 성경입니다. 결코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원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8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요14:7-11).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100%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알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은 다 거짓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혹은 원본이 우월하다고 하거나 그런 주장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 보거나 아는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듯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보는 원어의 뜻만이 옳은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다른 데서 옳은 뜻을 찾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들이 아버지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요10:30에서 아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온전히 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원본의 원어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 400년간 수백 개의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른 교리를 깨달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배도의 때에 마귀가 세상 무대에 등장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개된 성경의 등장이 필수 요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 해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변개일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이집트에서부터 이 사악한 일을 주도하였고 주후 200년을 넘기면서 그 일은 카톨릭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카톨릭교회의 사본들만을 번역의 대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감과 보존,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바른 성경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성경 신자들을 많이 불러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많은 혼들을 수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패스터



##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함에 대한 균형 잡힌 사고와 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경 신자라는 우리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극단적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주장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를 향상시키거나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믿는 것도 개인의 자유지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거나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일로 성경 신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이들의 오해를 사는 요소이며, 결과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사역에 큰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1611년에 반포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성경을 손에 들면 원어의 여러 뜻을 두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뜻이 많이 달라진 원어의 의도를 잘 알기 어려운 이 시대의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보존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봅시다.

아모스 4장 4절에는 십일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흠정역: 벰엘로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삼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KJB: Come to Bethel, and transgress; at Gilgal multiply transgressions; and bring your sacrifices every morning, and your tithes after three years.

개역: 너희는 벰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NASB: Enter Bethel and transgress; in Gilgal multiply transgression; Bring your sacrifices every morning, your tithes every three days

이 구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3년’이라고 하고 개역성경은 ‘3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대 역본 지지자들은 KJB가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3일’을 ‘3년’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스트롱 번호가 3117이고 구약 성경에 2,300회 이상 나옵니다. 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 ‘날’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 지지자들은 암4:4에서도 욘은 ‘3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 지지자들은 두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가 원어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의 지지자들은 비록 욕이 날을 가리키는 것이 맞지만 이런 경우는 신명기 등의 예를 볼 때 3일이 아니라 3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영어가 원어를 향상시키거나 교정할 수 있다고 우기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독보적 우수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3일이 아니라 3년이 맞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영어가 원어보다 정확하거나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아무 근거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욕이라는 단어를 ‘년’으로 번역한 셈이 됩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면, 킹제임스 성경 반대자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3일이 아니라 3년이 맞는다고 주장할까요? 그 이유는 욕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 가보니 이 단어가 ‘년’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역: 어떤 사람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거주용 집을 팔면 그 집을 판 뒤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으므로 만 일 년 안에 그것을 무를 수 있으나

KJB: And if a man sell a dwelling house in a walled city, then he may redeem it within a whole year after it is sold; within a full year may he redeem it.

여기에도 분명히 동일한 히브리어 ‘욕’이 쓰였지만 그 단어를 ‘날’로 하면 안 되기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인 ‘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현대 역본들은 어떠할까요?

개역: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NIV: If a man sells a house in a walled city, he retains the right of redemption a full year after its sale. During that time he may redeem it.

NASB: Likewise, if a man sells a dwelling house in a walled city, then his redemption right remains valid until a full year from its sale; his right of redemption lasts a full year.

모든 현대 역본들도 여기만큼은 동일한 히브리어를 ‘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자의적인 번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히브리어 욕의 뜻 가운데 ‘년’이 있음을 알았기에 여기서 정확하게 ‘년’이라 번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sup>5)</sup>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욕에는 극히 드물게 사용되긴 하지만 ‘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런 용례를 알기에 이 구절들의 욕을 정확하게 ‘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5) 십일조를 3일 만에 드릴까요, 3년 만에 드릴까요?

성경이든, 히브리 문학 작품이든 본래 용에 ‘년’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용을 ‘년’으로 번역했다면 그것은 번역자들이 실수를 범하였거나 심한 경우 독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성경과 히브리 문학 작품 등을 통해 용의 용례들을 폭넓게 연구한 뒤 대개 날을 의미하는 용을 이런 경우에는 ‘년’으로 바르게 번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은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도 적용되는 번역의 보편적 원리입니다.<sup>6)</sup>

성경에는 용례가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음이 그런 예의 하나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전1:14).

I have seen all the work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all *is* vanity and vexation of spirit.

이 구절의 vexation은 오직 전도서에만 10차례 나옵니다(전1:14, 17; 2:11, 17, 22, 26; 4:4, 6, 16; 6:9). 성경에 이 단어의 다른 용례가 없으므로 우리는 vexation에 상응하는 히브리어(스트롱 번호 7469, 7475)가 어떤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역/NIV 등의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vexation of spirit’을 ‘바람을 잡는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원어를 향상시키거나 교정해서 아무도 뜻을 알 수 없는 그 히브리어를 ‘영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번역했을까요?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원어뿐만 아니라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과 그 이전 역본들의 역자들은 어떻게 이리 번역하였을까요?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그분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작품(대개는 성경 관련 작품)을 읽고 그런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맥에 의거하여 바르게 성경에 도입하였습니다.<sup>7)</sup>

다시 말해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누군가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단어의 정의를 스스로 내려 성경을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번역된 것은 원어 자체가 그런 뜻을 품고 있고 히브리 사람들의 저작에서 그리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어를 오직 ‘괴롭게 하는 것’으로 번역해야만 정확한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성경들 가운데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심지어 뉴킹제임스 성경도 ‘바람을 잡는 것’으로 번역하여 불교 사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로 원어를 향상시키거나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6) 번역과 반역 사이에서: 기계적 일치 번역은 안 된다

<https://keepbible.com/KJB6/View/2Zh?s>

7) 해 아래서 하는 일은 바람을 잡는 일인가?

<https://keepbible.com/BQNA21/View/4KR?>

난센스이며 오류 없이 완전하게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펴거든 속히 그에게서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당시 번역 과정을 통해 성경과 히브리어/그리스어 용례를 폭넓게 살살이 살핀 뒤 모든 원어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이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되어 보존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 위에 건전하고 바른 모든 신학이 정립되었고 이 성경으로 오대양 육대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성경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 성경이 원어를 향상시키거나 교정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펴는 것은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의 보급과 확산에 방해가 됩니다. 제아무리 동기가 좋더라도 사실을 왜곡한 비뚤어진 그릇에는 진리를 담을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을 그것이 있을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정직한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잘못 나가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장의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바르고 당연한 것도 그것을 주장하고 알리는 사람이 바른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주장해야 상대방에게 바르게 들립니다. 단순히 영한사전에서 뽑아낸 지식으로 영어만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만약 성경 번역/해석 등이 그리 쉽게 기계적으로 다 될 것 같으면 구글 번역기로 전체 영어 성경을 하루 만에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행로가 과격하거나 비상식적이며 비논리적인 주장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해야겠습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고전14:20).

샬롬

패스터 정동수





##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

요즘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 성경이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와 '아니다'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잘 읽으시면 왜 답이 둘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인쇄공의 조판 실수로 인해 여러 가지 철자상의 실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조금이라도 연구한 사람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리건 박사의 유명한 글 '흠정역 성경 개정 신화'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히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킹제임스 성경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간한 1611년판 영어 성경의 맨 뒤에는 1611년 원판에 있는 철자상의 오류들을 보여 줍니다(파일 참조하기 바람). 이 명단은 'and'를 'aud'로 인쇄한 것 같은 소소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명단에만도 150여 개의 조판 실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조판 실수들은 첫 판이 인쇄된 이후에 대부분 곧바로 교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건 박사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한영대역 성경 부록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약 15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현대 스타일의 영어 성경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1611년에 잘못 조판된 부분이 다 교정되었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는 이러한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예를 통해 잘 보여 줍니다.<sup>8)</sup>

### ---1611년판

1. Though I speake with the tongues of men & of Angels, and have not charity, I am become as sounding brasse or a tinkling cymbal. 2 And though I have the gift of prophesie,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though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ve mountaines, and have no charitie, I am nothing. 3 And though I bestowe all my goods to feede the poore,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e burned, and have not charitie, it profiteth me nothing.

### ---1769년판(현대판)

1. Though I speak with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and have not charity, I am become as sounding brass, or a tinkling cymbal. 2 And though I have the

8) [http://en.wikipedia.org/wiki/Authorized\\_King\\_James\\_Version](http://en.wikipedia.org/wiki/Authorized_King_James_Version)

gift of prophecy,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though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ve mountains, and have not charity, I am nothing. 3 And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and have not charity, it profiteth me nothing.

이 세 구절 안에는 철자 변화가 11개, 타이프 세팅 변화(고딕체에서 로마체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리건 박사의 글을 참조하기 바람)로 인한 변화가 9개, 구두점의 변화가 3개, 2절에서 본문 자체의 변화가 1개(no charity 대신 not charity)가 들어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이 두 판을 비교해 봅시다.

이 두 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not’과 ‘no’를 가지고 ‘틀리다’ 혹은 ‘맞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것은 문법상 ‘not’이 맞는데 조판공이 ‘no’로 잘못 조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과 다니엘서 11장 38절에는 1611년판과 지금 인쇄되는 판에서 God와 god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43:12의 경우 원어 성경에는 god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래 없으므로 지금 나오는 성경은 god을 이탤릭체로 바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판공의 실수로 1611년판에는 이것이 God으로 정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판공이 실수한 대로 God을 따르지 않고 god을 따라 번역하였습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우리는 1611년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611년판을 따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판 실수요, 원본을 보면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명백한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god을 따라 번역한 것이 실제로 1611년판을 번역한 것입니다.<sup>9)</sup>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런 실수들을 보여 주면서 “봐라. 1611년판과 지금 우리가 보는 판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1611년판을 번역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의기양양해 하는 이들을 보면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성경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주장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반대를 위한 흠집 내기일까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흠정역이 아닌 어떤 성경이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 줘도 모자랄 판에 성경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면서 통쾌해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우리는 1611년판을 본문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60-1769년에 현대 영어로 확정된 영어 성경을 1611년판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611년판에는 사람의 명백한 실수들이 있었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속 사람들도 - 미국의 의회도 - 2011년을 맞아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을 기념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1760-1769년이 아니라 1611년입니다.<sup>10)</sup>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교정된 성경을 가지고 실제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시기 이후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150년의 기간에 신실한 사람들을

9) God과 good 사례도 보기 바람, <https://keepbible.com/KJB2/View/2Ur#>

10)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관련 미국 의회 결의안

<https://www.keepbible.com/KJB2/View/2VY?page=11>

통해 행하신 교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소문자 ‘g’나, 대문자 ‘G’나는 하나님의 교정에 의해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손에 확실하게 들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1611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깨뜨리는 이들이 늘 인용하는 분이 웨이트 박사님입니다. 이들에 의해 올해 연세가 85세이신 웨이트 박사님은 늘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박사님이 실제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웨이트 목사님 교회에서 그분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분의 교회가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매해 미국을 방문하면 그분의 집과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성경 보존에 관한 그분의 입장이 무엇인지 저는 확실히 압니다.<sup>11)</sup>

————— 인용 시작

#### D.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현재 킹제임스 성경 사이엔 겨우 421개의 단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현재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과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토마스 넬슨(Thomas Nelson) 출판사는 1611년도에 인쇄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일반 로마체로 서체만 바꾸어 내놓았다. 이 책은 한때 절판되었지만 다시 출간되었다. 본래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독일어체로 인쇄되었다. 나에게서는 독일어체로 되어 있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사진 복사본이 있다. 읽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s’가 다르다. 하지만 넬슨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기 쉬운 서체로 바꾸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런 작업을 한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왔다(아마 독자들도 그랬을 것이다). 뉴킹제임스 역본(NKJV)은 그저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한 또 하나의 ‘판’(edition)으로서 현대인에 맞게 개정되어 나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초판 때인 1611년부터 NKJV가 나온 1979년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번의 굵직한 변화들을 겪어 왔다는 말도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직접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1917년에 나온 「구(舊) 스코필드 주석 성경」 - 킹제임스 성경 본문 사용 - 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는 「구(舊)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녹음테이프를 들고 넬슨 출판사에서 나온 1611년판 흠정역 성경은 눈으로 읽으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비교해 보았다. 나의 귀로 듣고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극히 일부분이었다. 물론 철자법은 꽤 다르다.

원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는 철자법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 예를 들면 신명기 31장 1절에 “Moses went and spake these words to all Israel.”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는 ‘words’라는 단어가 ‘wordes’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비교를 하면서 다르다고 느낀 부분은 발음뿐이었다. 즉, 나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면서 소리에 있어 몇 가지 변화를 발견했다. 그러나 모두 출력해서 확인해 본 결과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었다.

결국 차이점이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 발음이 다르게 나는 421개의 단어였다. 킹제임스

11)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15-16쪽,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간.

성경이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지 아는가? 무려 791,328개의 단어이다.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는 전체 단어들 중에 고작 발음이 다른 421개의 단어들뿐인 것이다.

이 421개의 변화들 중에서도 285개는 ‘형태’만 바뀐 사소한 변화들이다. 나머지 136개만 ‘내용’의 변화, 즉 ‘of’나 ‘and’의 첨가와 같은 변화들이다. 소위 사소한 변화들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towards’와 ‘toward’가 다르게 들렸다. 이렇게 달리 들린 단어들을 기록했다. 모두 세어 보니 14번이었다. 또 나는 ‘burnt’와 ‘burned’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총 31번으로 아주 적었다.

같은 내용이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따로 계산했다. 가령 ‘amongst’와 ‘among’의 경우 36번 있었고 ‘lift up’과 ‘lifted up’은 51번 있었다. ‘You’는 82번 ‘ye’로 바뀌었다. 보시다시피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소한 변화가 214군데 있고 여기에 기타 71군데의 다른 사소한 변화들을 합쳐서 총 285개의 형태 변화가 있다. 요약하자면, 귀로 구별할 수 있는 변화가 총 421개인데 여기서 ‘모양’만 다른 곳이 285군데, ‘내용’이 다른 곳이 136군데이다. 이 조사 자료는 모두 책자로 정리되어 구할 수 있다[B.F.T. #1294].

### E.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은 사실상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같다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진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킹제임스 성경이다. 따라서 여기에 초판과 비교해 3판, 4판, 5판개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철자법의 차이를 말하는 거라면 맞다. 하지만 철자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에 관한 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 출간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 인용 끝

자신이 마치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는 전도사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보존에 대해 성도들이 믿고 있는 바를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기쁨을 가져다줍니까? 이들의 사술(詐術 혹은 邪術)에 말려드는 양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합시다.

원어의 보존을 믿는 사람이라면 웨이트 박사님처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보존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을 세워 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경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철자의 변화, 대소문자 변화, 고딕체에서 로마체로 타이프 세팅이 변한 것을 보여 주면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려는 이들에게 잠시도 틈을 주지 말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들(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단어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이와 같은 약속에 따라 지금 우리 손에는 완전히 보존되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간하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샬롬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는 이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 12:6-7).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시4:3).

나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받은 소명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긴 시간을 - 당사자에겐 징그럽도록 긴 시간이다 - 고민하고 갈등했던 기억이 엇그제 일 같다.<sup>12)</sup>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 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벧후 1:10).

지금 되짚어 보면 그저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들이었다. 당시에 나는 거의 매일 밤을 뜯눈으로 보내는데 옆의 아내는 천하태평하게 잠만 잤다. 시간만 나면 온갖 곳을 찾아다니면서 소명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다. 그래도 점집/무당집은 안 찾고 교회/사역자/기도원만을 찾고 또 찾았다. 묻고서 답을 얻고 그곳을 나설 때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는 “신학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또다시 의심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말 그대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시간의 반복이었다.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므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시73:22)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을 반항하고 투쟁하며 보내다가 결국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여러 가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신8:5).

오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시57:7).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이처럼 끔찍한 고통을 치렀기에 그 이상의 고통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염원이다.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만나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무 의심 없이 공부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개역성경과 하나님의 은혜로 손에 잡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비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읽고 차츰 깨달으면서 온 몸과 마음에 의심과 의문이 밀려들었다!

---

12) 이것은 네이버 청지기 카페(<http://cafe.naver.com/tenjaga/1682>)를 운영하는 목사님의 글이다. 이 글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잠 8:9).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정신적 고통과 갈등은 신학교로 진로를 결정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고민 속으로 다시 나를 몰아갔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해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시119:28).

가족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 이때 간첩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 - 약 1년간을 혼자 몰래 숨겨 두고 도둑질하듯이 흠정역 성경을 읽으면서 흠정역 성경을 읽는 것을 누가 알까 봐 무척 겁을 냈다. 참으로 한심하다!

그렇다고 어디에다 내놓고 속 시원히 물어볼 수도 없고 매일매일을 진퇴양난 속에서 지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 지르고픈 이발사가 바로 나였다. 아마 요즘 세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은 잘 안다. 불온서적이냐 금서라고 리스트에 오른 책을 소지하거나 만났을 때의 심정을!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뉘이시니이다(시 73:26).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교단 신학교 출신자가 사역을 하려면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개역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코스가 아닌가!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역시 이걸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흠정역 성경이 전혀 흠잡을 데 없이 - 흠, 흠이다 -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나의 양심의 소리에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딤후1:15). 하지만 나의 이성은 늘 양심의 반대편에서 아래처럼 끊임없이 맞붙을 질러 댔다.

아니야 잘 생각해 봐. 세상 교회가 모두 개역성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려면 당연히 세상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역성경을 써야지. 그러면 신경 쓸 일 없이 모든 것이 무난할 텐데 왜 그러니(갈5:17)? 왜 굳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려운 사역을 하려고 해. 또 확인도 검증도 안 된 길을 골라서 가려고 하니?

개인적으로 나의 유일한 남동생은 장로 교단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다. 단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흠정역이고 동생은 개역이다. 아이고, 무슨 신파극도 아니고 생각하면 머리에 쥐난다!

이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문제는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신도 없었고(암 3:3) 고민으로 다가왔다(마10:36).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무난히(?) 통과했다.

이쯤에서 흠정역 성경을 만난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그만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마저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전15:10).

이제부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흠정역 성경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밝히려 한다. 여기서 흠정역 성경의 정통성/우수성/정확성 등에 관한 내용은 생략할 것이다. 진심으로 독자가 알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킹제임스 성경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을 내서 기독교 서점에 가 보면 관련 서적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당연히 흠정역을 반대하는 글도 찾아 읽으면서 서로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렘29:13).

세상에는 많은 성경들이 성경이란 이름을 걸고 교회와 교인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성경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마5:3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순수한 성경과 인간들이 이익과 목적을 위해 어떤 기교를 부려 만든 성경은 전혀 같을 수 없다. 이 말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여기서 물러서서 다른 일을 보는 게 좋을 것이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6).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다음 단추부터는 무조건 잘못된다. 즉 어떤 이유로든지 인간들이 손을 대서 고친 성경은(고후2:11) - 성경의 단 한 글자라도 고의로 고쳤다면 - 진리의 성경이 될 수 없다. 그 성경은 그저 그런 인간의 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모든 말을 줄이고 지금부터는 왜 내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택하고 전혀 후회 없이 외길을 가는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세 가지 이유를 공개하려 한다. 이유가 엄청 많지만 지면 관계로 이 정도만 쓰려 한다.

### 1. 흠정역 성경의 기본 정신이 나의 온 마음을 강타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기본 정신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진이 우수하다든가 혹은 성경 번역을 위해 많이 준비했다든가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까지 내가 세상의 성경들을 여러모로 접하면서 - 대략 20~30가지 - 세상의 일반적인 성경들에서는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내용을 발견했다. 그것은 흠정역 성경이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성령님을 절대자(전능자)로 대접한다는 점이다.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약4:10).

이것은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세상 모든 성경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창조자 하나님과 아울러 우리 주님에 대한 대접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두 성경을 펴 놓고 어떤 페이지를 비교하면서 읽어 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흠정역 고후5:15, 21).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개역 개정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는 극존칭을 사용한다. 세상 성경과 달리 흠정역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깍듯한 극존칭으로 대우를 해 드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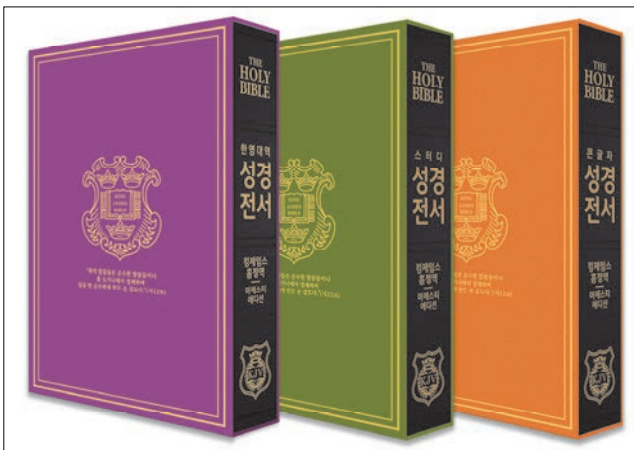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안 그런가? 영적 아버지께는 대충 해도 되는가? 독자는 독자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대놓고 말하는가? 내가 늘 말하듯이 그저 그런 절간의 뺨치들도 - 모두 지옥에 갈 인생들이다 - 자기 동료들 부를 때는 높여서 '스님'이라고 한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신 그분께 의도하든 안하든 '님'자도 붙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성경들이 하는 일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잠9:10)

주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으로 기록한 성경이 어디 있나 찾아보라! 다들 그냥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한다. 독자는 이게 그저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주께서 아시고(흠정역 요4:1)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개역 개정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2021〉



이런 번역은 늘 아기 예수만 들먹이는 로마 카톨릭 집단이 의도한 것이다(시2:4). 이러니까 설교나 기도하면서 사역자고 교인이고 누구나 겁도 없이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호칭을 마구 쏟아 낸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존칭으로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배밭 근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살전5:22).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것을 보고 그때 결심을 하였다.

네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전 5:2).

## 2. 흠정역 성경은 기절할 정도로 쉽다

나도 개역성경을 읽을 만큼 읽었다. 완독을 몇 번 했다는 식의 자랑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이 읽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약한 것이니라(약4:16).

그런데 개역성경을 가지고 완독을 하든지, 부분적으로 읽든지 짜증 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솔직히 개역성경은 내켜서 읽었다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읽었다.

“거 참, 성경이 진짜 어렵구나! 이걸 보통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구나!”라고 말하며 더 읽거나 무언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접은 적이 매우 많다. 명색이 목사인데도 말이다. 성경이 어려우니 성경의 명확한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을 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개역성경은 읽은 내용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앞뒤 문맥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며 개별 단어는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 단순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역을 하면서도 늘 관련 주석 책을 달고 살았다. 물론 나의 무식도 여기에 일조했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쓰셨을까? 그리고 그 어려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만난 뒤 그것을 읽어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엄청 의심을 했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 혹시 이거 가짜 아닌가? 도대체 성경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다. 독자도 당장 구해서 한번 읽어 보면 내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살전5:21).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주석 책을 한 권도 사지 않는다. 물론 살 돈도 별로 없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굳이 주석 책을 봐야 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간혹 흠정역을 읽으면서 당장 풀리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성경에서 성경을 연결시키면서 해답을 찾아 주시고 아둔한 나를 깨닫게 하신다(시 32:8).

그렇다!

하나님께서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쉽게 읽으라고 성경을 주셨지 어떤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당연한 생각이 떠오르자(고전1:26-29) “옳거니, 이게 진짜 성경이구나!”라는 감탄사와 함께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빠져들어 갔다. 반면에 이를 악용한 로마 카톨릭교회는 오직 교회와 사제에게 성경 독점권을 준다. 물론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벧후1:20-21). 그런데 ‘영적’이란 단어의 뉘앙스가 좀 그렇다. 즉 ‘영적인 것 = 어렵다’는 선입관으로 인해 성경은 난해한 책이고 누구나 해석해 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대개 단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이기 전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성경기록의 일차적 목적이 교리에 관한 분별이다(딤후3:1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doctrine)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sup>13)</sup>(흠정역)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개역 개정판)

그런데 교리 부분을 먼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성경 해석은 언제나 문자적인 해석이 먼저이고 - 이건 상식이다 - 그 뒤에 문자적 해석으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을 뒤바꾸는 것이 자기 위주의 해석이고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다.

나의 글들을 읽으면 모든 글은 거의 예외 없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행된다. 그런데 내가 인용한 말씀의 영적 뜻은 이렇다고 하면서 추가 설명하면서 올린 문장이 몇 개나 되나 한번 찾아보라! 찾으면 선물을 주겠다. 물론 성경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1%도 안 된다. 이것을 위해 영적 해석에 매달려야 하나? 그러므로 내가 인용한 말씀을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들이면서(롬12:3) 슬슬 읽어 가면 된다. 복잡한 세상에서 굳이 어렵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자!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까?”, “이건 무얼 말하는 걸까?” 등 쓸데없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으면서 가면 된다. 성경을 어렵게 읽고, 어렵게 해석하는 짓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그때 바로 올라오는 뜻을 받아들이면 된다.

성경을 영적(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잘난 인간들의 못된 버릇은 초대 교회 시대부터 시작된 일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 어리석은 무리들이여! 성경이 어려우면 좋아할 사람은 오직 샅꾼 목사들과 신학자들밖에 없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

그러나 흠정역 성경은 내용이 평이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므로 성경을 마음먹고 대하면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성경의 대부분을 쉽게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이 말씀을 연결시켜 주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13)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말은 ‘교리’(doctrine)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말을 개역성경은 ‘교훈’으로 바꾸어 버렸다.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고전2:13).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안 할 수 없다(요일2:27). 의심나면 직접 읽어 보고 아니면 나에게 항의하기 바란다.

오히려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신30:14).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가야 할 목회 방향도 결정하는 행운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얻었다(고전2:13).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쪽으로 끝없이 전진할 것이다(딤후3:14)!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시 56:10).

### 3.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개정된 적이 없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첫 출판 후 지금까지 철자법 등의 변화로 인한 교정(정정)만 몇 번 했다. 이 사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참고로 개정(revision)은 성경의 본문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교정 혹은 정정(correction)은 철자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것은 개정과는 전혀 다르다.

세상 교회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개역성경은 본문을 바꾸는 일, 즉 성경 개정을 휴지코 푸는 일처럼 쉽게 해 왔다(수십 번씩이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요즘 세상 모든 교회에서는 핏대를 올리면서 개역 개정판을 사라고 선전하고 거의 반강제로 팔고 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은 개역성경을 개정한 것이다. 분명히 그들 스스로 개정이라고 토를 달았다.

개역 개정판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개정한 것을 밝혀 놓았다.

개역성경을 7만 군데 이상 고쳐서 시대에 맞게 내놓았다.

“새 시대에 맞게 고쳤다.”는 말은 예전의 개역성경은 내용이 부족한 구시대 성경이라 침단을 달리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

이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고치고 조정한다는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신12:32).

그러면 개역성경을 과연 올바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나?

집에서 쓰는 걸레도 7만 군데를 고치면 더 이상 걸레가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쓰레기다. 내 말이 틀렸는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고쳤는가?

무엇을 근거로 고쳤는가?

다음번에 70만 군대를 고친 개정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

걸레는 강력 하이타이로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을 매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마9:16).

반면에 영국에서 1611년에 처음 나온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약 4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다. 정말 미칠 정도로 너무 좋아 찹추고 싶다!

물론 몇 번의 교정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교정이 아닌 개정이 아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우리말 흠정역 성경도 몇 차례 교정은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흠정역 성경의 가치를 모른다면 가서 발 닦고 자는 게 좋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네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잠23:9).

성경을 멋대로 뜯어고치는 인간들에게 신구약 성경의 기록을 단으시면서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신다. 우리 모두 똑똑히 한 자 한 자 읽고 마음 판에 새겨야 한다(잠3:3).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계22:18)

위의 말씀으로는 뭔가 2% 부족한가?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9).

이쯤에서 일단 이번 글은 마무리하련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119:103)

그럭저럭 인생을 살 만큼 산 나에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욥34:21).

칭지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신실한 종이었고(잠20:6) 칭지기 사역의 바탕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었다고 기억되기 원한다(고전4:2).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시4:3).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넷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회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V·NASB 등 포함〉

##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 킹제임스 흠정역



##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적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뵘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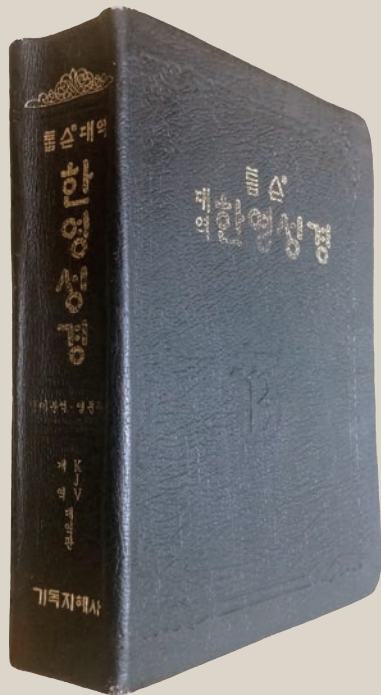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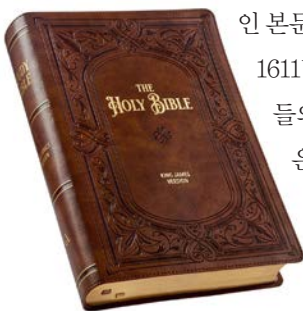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궁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궁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툰스대역 한영성경(기독교지혜사, 부록 1, p. 4, 1989).



##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평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왕국의 국왕 제임스 1세는 1604년에 영국의 모든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할 것을 지시하였고, 1611년 5월 2일에 출간된 성경은 왕의 이름을 따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불린다. 킹제임스 성경은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기반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 50여 명이 동원되어 번역한 성경으로 1611년 출간된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성경이다. 대중들의 일상 영어 속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이 침투해 들어갔기에 이것은 영어권 대중의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흡사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일종의 DNA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권 세계의 공통 규범'이 되었다.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명



무료 설교  
강해 노트

성경론

값 7,000원